2011.05.04/11 NO.108
gonggam.korea.kr

Weekly 공감



공기업 선진화 어디까지 왔나

P27~43

중점기획 공정사회를 위한 공정납세… 정의는 있다 P18~25

굿모닝 서울! 이번엔 G20 국회의장회의 열린다 P8~9

日에 있던 조선왕실의궤 등 1천2백5책 조국으로 P11

G20 SEOUL
SPEAKERS' CONSULTATION
2011

안전한 세계, 더 나은 미래

Safe World, Better Future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2011. 5. 18 – 20 / 국회의사당 중앙홀

대한민국 국회 주최로 "공동번영을 위한 개발과 성장"에 대해
세계 G20 국가의 의회 수장들이 함께 모여 글로벌 이슈의 현안과 해법을 논의합니다.

공기업 위기관리 '백신' 갖춰라



박경귀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조직이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야 한다. 사회생태주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은 자연환경, 사회제도 및 문화, 문명의 기계·시설 장비의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하는 커다란 유기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환경은 인간이 예측하기 힘든 변화의 속성과 결함을 지니고 있고, 때론 인간을 이롭게 하는 조건으로, 때론 광폭한 재난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interaction)하기 위해서는 예기치 못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위기관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위기는 자연적 재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각 조직체의 본질적 직무의 잘못된 수행이나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 기술적 결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도 위기가 발생한다. 공기업이 맡고 있는 전기, 가스, 도로, 공항, 지하철 등 공공서비스는 국민 안전과 재산, 일상의 편익과 직결된다. 이런 서비스에는 언제든지 자연적, 비고의적 원인에 의한 대규모 재난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공공기관이 위기관리의 원칙과 방향을 성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기업의 위기관리를 위해 잭 웰치 전 GE 회장이 제시한 위기관리 5원칙을 참고할 만하다.

첫째, 보이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난 사태의 원인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세상에 비밀은 없다. 사태의 원인이나 수습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의혹에 대해 부인하거나 감추기보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먼저 사과하는 게 좋다.

공기업이 맡고 있는 공공서비스는 전기, 가스, 도로, 지하철 등 국민 안전 일상생활의 편익에 직결된다. 이런 서비스는 언제든 대규모 재난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위기관리의 원칙과 방향을 성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어떤 아픔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의 1차 책임은 당해 공기업에 있으므로 위기 초래 원인을 제거하고 시스템과 사람,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외부의 호들갑스러운 비판에 의연해야 한다. 위기 극복 자체에 몰입하고 외부의 반응에 어느 정도 담담해질 필요가 있다.

끝으로 위기는 더 강해지는 과정임을 명심해야 한다. 절망하기보다는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조직의 결속력이 높아지고 위기극복의 동력이 생긴다. 실제로 각종 재난이나 위기를 겪은 후 조직이 이전보다 훨씬 선진화되고 위상과 역량이 강화되는 사례가 많다.

웰치의 5가지 원칙 외에 세 가지 준비가 더 필요하다. 첫째는 공공심이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늘 공공심을 잃지 말아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 둘째는 전문성이다. 구성원의 지식과 기술의 전문 역량 여부에 따라 인위적 재난과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 유연성도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모든 업무처리에 체계적인 매뉴얼을 갖고 있었지만 다양한 실제 상황을 즉응(卽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위기극복과정에는 규정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사고가 요구된다.

공공기관들이 이러한 위기관리의 원칙들을 조직에 내면화함으로써 위기의 사전예방과 슬기로운 위기극복의 '백신'으로 활용하길 기대해 본다. G

Contents NO.108 2011.05.04/11 통권 209호



기획특집

혁신과 선진화 공기업이 사는 길

공기업은 한때 '신이 내린 직장'으로 불렸다.
하는 일 없이 높은 보수를 챙길 수 있다는, 야유 어린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지금은 아니다. 강력한 선진화 정책으로 환골탈태하고 있다.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역동적이면서 알뜰살뜰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 2011년, 공기업의 혁신과 선진화는 현재진행형이다.

01 Reader & Leader | 박경귀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
28 **공기업이 바뀐다** | 군살 빼고, 체력 키우고… 변해야 산다
30 **중소기업은행** | 책임경영 했더니 사상 최대 실적 '열매'
32 **한국중부발전** | 협력사를 중견기업으로 '동반발전'
34 **축산물품질평가원** | '스킨십 경영'에 9년 무분규로 화답
36 **코트라** | 인재난 중소기업 · 퇴직 무역베테랑 '중매'
37 **한국남부발전** | 발전소 세우며 지역청년들 기능교육
38 **국립공원관리공단** | 임직원 역량 높여 조직침체 고비 넘다
40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정보 '원 클릭' 서비스
42 **전문가 쓴소리** | 연수 · 파견 형태 '철밥통 인력' 여전히 많다



표지 이야기 부처님오신날(5월10일)을 앞두고, 지난 4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동자승 삭발 및 수계식'이 열렸다. 이날 삭발한 어린이가 친구를 바라보며 해맑게 웃고 있다. 사진 · 조선DB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1.05.04/11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정병국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12


44



22

04 **공감 라운지** | 대학생 청렴홍보단을 모집합니다

06 **원자력 안전 대토론회** | "과학이 소통 안되면 고통이 된다"

08 **포커스** | 굿모닝 서울! 이번엔 G20 국회의장회의

10 **사진으로 세상읽기** | 어린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입니다

11 **문화재** | 日에 있던 조선왕실의궤 조국으로

12 **공감 인터뷰** | 유승흠 한국의료지원재단 초대 이사장

14 **포토뉴스** | 바다로 간 G20세대, 해병으로 돌아오다

16 **화제** | '센돌' 이세돌 투혼에 中구리 무릎 꿇다

| 중점기획 | 공정과세와 성실납세

18 **조세정의** | 공정과세가 공정사회 주춧돌

20 **역외탈세담당관실 현장탐방** | 지구 끝까지 쫓아 탈세 뿌리 뽑는다

22 **모범납세자들** | "세금도 누린 만큼 내는 게 당연하죠"

24 **대학생 홍보단** | "세금은 뺏기는 게 아닌 돌려받을 돈"

25 **인터뷰** | 김문수 국세청 차장 "세금낭비 감시하는 시민의식 필요"

44 **반갑습니다** | 암 투병 중 산문집 펴낸 이해인 수녀
"아프면 아픈 대로 나눌 것이 많아요"

46 **이 사람** | 영화 〈수상한 고객들〉로 흥행몰이 배우 류승범

48 **문화부 대학생기자가 만난 사람** | '두 팔 없는 화가' 석창우 화백

50 **지방행정의 달인** | "불편한 것은 못 참아"… '맥가이버' 납시오!

52 **G20세대가 G20세대에게** | "도전하는 행복을 찾아 서울을 떠났죠"

54 **공감코리아 정책기자의 세상읽기** | "하루 만에 새 집으로 바뀌었어요"

56 **과학이야기** | 몸속 방사성물질 80퍼센트 소변 배출

58 **전시** | 찰나와 찰칵! 민병헌 사진전

59 **디딤툰** | 글로벌 에티켓 37 보물찾기

60 **화제의 책** | 〈거래의 7가지 함정〉

61 **공감카툰** | 관용과 친절이 정답!

62 **문화 공감** | 어머니… 엄마… 사랑합니다

64 **영화 속 영웅 이야기** | 전쟁의 광기… 남은 것은 사회의 냉대

Lounge
공감라운지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5월 12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죠

"두 달 후 출산을 앞둔 '워킹맘'입니다. 출산 전까지 일을 계속하고, 출산 후 복귀를 계획하고 있지만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 막막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획특집을 보며 많은 정보를 얻었고 앞으로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회사의 따스한 배려가 더해진다면 모든 워킹맘이 행복하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강자옥 (서울시 중구 충무로5가)

귀찮다 말고 평소 재난대응 훈련 임해야

"중점기획 '안전한 한국, 재난에서 자유로우려면' 기사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기사를 통해 5월 2일에서 4일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해야겠습니다. 평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연습해야 실제 재난상황이 오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석현 (경남 양산시 소주동)

맞벌이 부부 지원과 혜택 정착되길

"기획특집 '직장보육시설로 아이와 함께 출근해요'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보육시설 설치 기업이 늘어난다니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맞벌이 부부들이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남성 육아휴직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기업들이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을 스스럼없이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당사자는 더욱 힘을 얻고 복직 시 더욱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정부의 지원과 혜택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미라 (서울시 관악구 청룡동)

재난대응 만반의 준비 필요해

"중점기획 '안전한 한국' 기사 잘 읽었습니다. 이를 통해 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대한 만반의 준비와 자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라고는 하나,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불시에 찾아오는 재앙에 긴장의 고삐를 늦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철저한 준비만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유재범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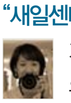
적극적인 배려와 정책이 마련되길

"'리더앤리더'에 실린 '일과 육아 사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는 만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도 줄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임신과 출산,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배려와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수 (인천시 부평구 부평2동)

이 기사, 아쉬워요

"새일센터는 어떻게 찾아가나요"



기획특집 '여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행복하다'에서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꼼꼼히 소개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만 주부나 다문화 가정뿐 아니라 학생이나 젊은 미혼여성, 실버여성들에 대한 부분도 골고루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 중 새일센터를 어떻게 찾아가야 하고 문의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지혜영 (주부,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복지 수요자인 시민의 얘기도 넣었으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가 진짜 복지' 기사를 잘 보았습니다. 기사 중 복지 수요자인 국민들의 복지 체감은 여전히 낮은 형편이라고 언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만 다루어졌는데 기사 내용에 복지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 첨가했더라면 많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최주현 (대학생, 부산시 중구 동광동)**

알립니다

대학생 청렴홍보단을 모집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기 대학생 청렴 홍보단을 모집한다. 참여방법은 대학생 4~6명이 1팀을 구성하여 반부패·청렴 홍보 활동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홍보단은 제출한 활동계획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하는 미션을 수행하고 청렴한 세상 캠페인에 참가하게 된다.

접수 기간 | 5월 12일까지
접수 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한세상' 홈페이지(www.acrc.go.kr/edu)를 통해 팀 대표가 참가신청서와 활동계획서 제출
활동 기간 | 2011년 6~11월(6개월)
지원 혜택 | 월별 활동결과를 평가해 해외 청렴선진국 탐방 특전, 장학금 등 시상
청렴한세상 캠페인 운영사무국 ☎ 02-735-9513 tgy9525@naeil.com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관광명소로 만들어주세요

한국관광공사는 대학생 대상 '대한민국 관광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가방법은 4인 이내로 팀을 구성해 공모전에서 제시하는 지역권과 공통키워드를 반영한 자율주제를 선정하면 된다. 공모전은 지역별 예선을 거쳐 전국결선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접수 기간 | 5월 31일까지
공모 주제 | (예시)서울 권역의 관광매력을 활용한 재방문 전략
접수 방법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이메일(contest@knto.or.kr) 접수
지원 혜택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외 시상
관광아카데미 ☎ 02-729-9470, 9659 www.visitkorea.or.kr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뽑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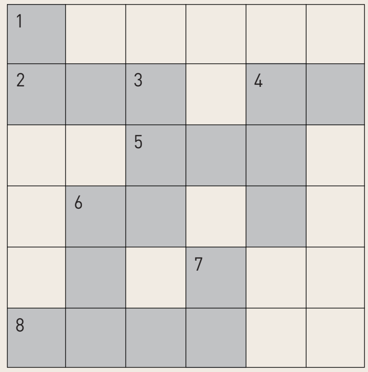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인기투표가 한창(11월 10일까지)인 가운데 '제주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전화 투표 | 001-1588-7715, 영어 안내 음성 후 '삐' 소리가 나오면 7715(제주선정코드)를 입력한다. 전화료 약 1백40원
문자 투표 | '제주' 'jeju' 'JEJU' 중 택1 하여 문자 작성 후 001-1588-7715로 전송.

자세한 내용은 '세계 7대 자연 경관 제주 공식블로그(blog.naver.com/7wondersjeju)' 참고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www.jejun7w.com

공감퍼즐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5월 10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2. 올이 가늘고 고운 모시. ♪ OOO 옥색치마 금박 물린 저 댕기가~♬
4. 공평하고 올바름. OO사회 실현.
5. 실, 헝겊 등의 길고 가느다란 조각을 이르는 말. 실OOO.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지명(里). 최근 정밀 안전진단이 실시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이름이기도 하죠.
8.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성년의 날(16일), 부부의 날(21일) 등으로 이어지는 5월은 무슨 달?

세 로

1. 세금을 냄. '공정 과세, 성실 OO'
3. '십리(十里)에 오리(五里)를 더한 거리'로, 조금 먼 거리를 뜻할 때 쓰던 말.
4.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사회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해 경영하는 기업. "OOO 선진화 방안을 강구하다."
6. 작고 속력이 빠른 배.
7. 족제빗과의 포유류. 강이나 호수, 늪, 바닷가 등에서 서식하죠. 천연기념물 제330호.

〈Weekly 공감〉 106호(4월 20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자전거 **3** 외손녀 **4** 신규 **5** 녹화 **6** 각인각색
세로 **1** 자녀 **2** 거석문화 **3** 외규장각 **5** 녹색 **7** 인삼

〈Weekly 공감〉 106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선황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나정순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박해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박혜선 · 전남 목포시 복만동
신선영 ·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과학이 소통 안되면 고통이 된다"

전문가들 "방사성물질 자체 위험보다 공포가 더 큰 문제" 지적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을 돌아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과 과학기자협회가 지난 4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원자력 안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28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기술진 및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밀 안전점검단이 고리 원전 1호기의 구조물 진단 활동을 하고 있다.

"원전과 방사성물질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나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원자력 안전 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범국민적 소통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재환 이사장은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을 가득 메운 4백여 명의 청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장순흥 교수는 '일본 원전사고의 정확한 이해와 우리나라 대응방안'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일본 원전사고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10대 교훈'을 제시했다.

우선 기술 측면에서 ▲비상 전기공급 등 비상냉각 시스템 강화 ▲사용 후 핵연료 보관 수조 안전성 강화 ▲수소제거 시스템 점검 및 보완 ▲가동 중 원전에 대한 PSA(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분석 등 재점검 ▲신규 원전에 대한 피동(전원이 필요 없는) 안전계통 강화 등이 거론됐다.

장 교수는 제도 측면에서는 ▲중대사고시 대응 가능한 절차서(매뉴얼) 확립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고급인력 양성 ▲중대사고를 포함한 안전연구 증진 및 매뉴얼 반영 ▲국제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정보·지식 교류 ▲안전문화 확립과 원전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대형 지진·지진해일 대응능력 평가 필요

그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의 안정을 위해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에 냉각수를 주입하는 것은 물론, 압력용기와 콘크리트 차폐물 사이 공간에도 냉각수를 넣어 압력용기 외벽을 식혀야 한다고 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백원필 원자력안전연구본부장은 '한반도 지진 가능성과 우리 원전 안전성' 주제의 발표를 통해 국내 원전은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역사적 문헌과 관측기록에 근거한 설계기준을 토대로 충분한 여유를 두어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원전사고 관련 환경방사능 감시결과'를 주제로 발표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노병환 방사선안전본부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경민 기자

한국원자력문화재단과 과학기자협회는 지난 4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원자력 안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가 우리나라에 미친 방사선 관련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기상청 김승배 대변인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한반도 주변 기류 변화'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에서 일시적으로 동풍이 분다고 해도, 편서풍의 강력한 힘에 밀려 우리나라로 계속 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한반도 주변 상층에서 늘 부는 편서풍 때문에 일본에서 직접 방사성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일본 원전 방사선, 우리 인체 및 식품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원자력의학원 이승숙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은 "일본 원전과 관련한 방사선 피폭은 건강을 우려할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방사선에 대한 공포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서 "국내 원전사고 가능성에는 철저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또는 국내 원전사고 가능성 대비해야

중앙일보 곽재원 과학기술 대기자는 '일본 원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보도와 소통의 중요성' 주제의 발표를 통해 "원천적인 정보부재 속에서 속보전쟁만 해서 불안을 급속히 확산시켰다"면서 "어려운 과학용어를 쉽게 설명하지 않고 남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기조연설과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소비자계에서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 회장이 참가해 "방사능, 방사성, 방사선 등 용어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면 좋겠다"면서 "원전 안전 책자를 만들어 배포해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때마침 대토론회에 참가한 청중에게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만든 〈알기 쉬운 원자력안전 Q&A〉라는 소책자가 배포됐다.

교육계 대표로 참석한 전국과학교사협회 전석천 회장은 "그동안 교육 과정에서 원자력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모두 알려주는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식품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이광호 식품위해평가부장이 참석해 "지난 3월부터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일본에서 수입하는 식품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다"면서 "5월부터 영·유아용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을 신설한다"고 말했다. G

글·서일호 기자

고리원전 실전 같은 방사능 방재훈련

지난 4월 28일 낮 12시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 반경 2킬로미터 이내 주민들에게 적색비상을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적색비상 발령은 원자로 격납용기의 방사선 차폐기능이 상실되면서 방사성물질이 발전소 외부로 확산이 우려될 경우 발령되는, 원전사고에서 가장 높은 비상단계다.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정영익)는 이날 신고리 2호기에서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되는 중대사고가 발생한 것을 가정해 대처하는 방재훈련을 했다. 훈련은 오전 10시 신고리 2호기 증기발생기 튜브에서 원자로 냉각재가 누수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20분 만에 백색비상이 발령되고 고리원전 직원들로 구성된 비상요원 1백16명이 소집됐다. 백색비상은 발전소 안전에 이상사태가 발생해 방사능 오염이 발전소 건물 내에 국한될 때 발령되는 단계를 말한다.

고리원전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운영하는 방재관실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방사선비상보안대책실,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등에 백색비상 발령을 알렸다.

또 원자로에 전원을 공급하는 차단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신고리 2호기의 외부전원이 상실됐고 곧바로 청색비상이 발령됐다. 청색비상은 방사능 오염이 발전소 부지 경계선에 국한될 경우 발령된다. 이때부터 원자력발전소에서는 비상대책본부가 본격 가동된다.

비상대책본부장과 방사선평가반, 상황반, 행정지원반, 홍보반 등은 고리원전에서 14킬로미터 떨어진 고리방사능방제센터로 이동해 현장에 있는 직원들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비상사태 수습에 착수했다.

하지만 사고발생 1시간40분 만에 원자로 냉각수를 공급하는 급수펌프의 운전이 불가능해지고 원자로용기에 냉각수가 고갈돼 노심(핵연료)의 온도가 섭씨 3백37도까지 올라가면서 노심이 녹아내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됐다. 고리원전 내 필수요원이 아닌 직원들은 "10킬로미터 밖에 있는 기장중학교로 대비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 '최후의 특공대'인 65명의 필수요원들은 원전에 그대로 남아서 상황실과 연락을 하면서 복구작업을 했다.

이날 훈련은 고리원전 자체훈련이어서 주민대피는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비상대책본부에서 노심 손상과 격납 건물 내 핵분열, 방사성물질 방출 확산 정도에 따라 신고리 2호기 반경 5~8킬로미터 내 주민들을 안전지역으로, 8~20킬로미터 이내 주민들은 옥내대피를 권고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굿모닝 서울! 이번엔 G20 국회의장회의

5월 18~20일 '공동번영을 위한 개발과 성장' 주제로… G20 등 총 25개국 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에서 G20 국가들의 모임이 열린다.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가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다. '공동번영을 위한 개발과 성장'을 주제로 열리는 이 회의에서는 G20 정상회의와 연계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입법부 차원의 대응방안이 논의된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 이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G20 SEOUL SPEAKERS' CONSULTATION 2011
Safe World, Better Future

지난해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올해는 G20 국회의장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오는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열리는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에는 G20 국가 국회 수장 외에도 비회원 5개국과 국제의회연맹(IPU)이 참석한다.

이번에 참석하는 비회원 초청국들은 G20 정상회의에 관례적으로 참석해온 스페인,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협력관계(NEPAD)'의 의장국인 에티오피아, 유엔에서 G20와 협력을 추구하는 28개국 모임(3G: Global Governance Group)의 의장국인 싱가포르, 아프리카연합(AU)의 의장국인 적도기니, 알제리 등이다.

주요 참석국들의 만장일치로 서울 유치

'공동번영을 위한 개발과 성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대한 의회 차원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글로벌 불균형, 빈곤과 식량위기, 기후변화, 테러 등과 같은 국제문제들이 주요 의제다.

G20 국회의장회의는 지난해 9월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처음



이경호 기자

국회의사당 본관에 설치된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준비위원회는 소셜 네트워크서비스와 공식 홈페이지, 홍보부스 등을 활용해 회의 개최를 홍보하고 있다..

열렸다. 이번 서울회의가 2차 회의다. 오타와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 박희태 국회의장이 G20 국회의장회의의 정례화와 2차 회의의 서울 개최를 제안했고, 이에 주요국 의장들이 만장일치로 지지해 주어 이번 회의가 성사됐다.

서울회의 유치 후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해 10월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준비위원장은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이 맡았다. 준비위 발족 후 박희태 의장, 정의화·홍재형 부의장 등 국회의장단은 국제회의나 방문외교를 통해서 서울회의 홍보와 각국 의장의 참석을 독려해 왔다.

박 의장은 지난 2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G20 국가 주재대사들을 초청,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를 홍보하는 한편 인도 등을 방문해 G20 국회의장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정의화, 홍재형 두 부의장도 지난 3월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지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지역을 방문해 박 의장의 '참석 요청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의장단의 활발한 방문외교 한편에서 준비위는 총괄기획, 전략, 의제개발, 의전, 영접, 홍보, 경호 등 총 7개 팀을 구성해 서울회의를 준비해 오고 있다. 준비위는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를 알리고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공식 홈페이지, 홍보부스 등을 다양하게 활용 중이다.

공식 홈페이지도 개설해 회의의 내용과 준비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퀴즈 이벤트 등을 진행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국회의사당 면회실 로비에 홍보부스를 마련해 영상과 사진 등을 통해 회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국회 정문에는 회의 개최를 알리는 홍보탑을 세웠다. 곳곳의 전광판을 통해서도 G20 국회의장회의의 서울 개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전통문화·디자인 세계에 알릴 기회로

각국 의회 수장들의 공식 입국일은 5월 18일이다. 이날 저녁 신라호텔에서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19일 오전에는 공식 회의장인 국회 중앙홀에서 G20 국회의장회의 개회식이 열린다. 개막식 후 시작되는 회의는 20일 오전까지 이어진다.

주요 회의장인 국회 중앙홀은 국회 본연의 웅장함을 그대로 살리되 한국적인 디자인을 가미해 우리나라만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드러내는 방식으로 꾸며진다. 이를 위해 국회는 디자인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권영걸 서울대 미대 학장을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번 회의장에서 사용되는 원형 테이블은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의

서경리 기자



5월 19일 참가국 국회 수장들의 공식 오찬이 열리는 국회 '사랑재'. 전통한옥으로 꾸며졌다.

와 성과를 되살리는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국회 의원동산에 건립된 '사랑재'가 5월 3일 문을 연다. 사랑재에서는 19일 참가국 국회 수장들의 공식 오찬이 열린다. 사랑재는 회의 폐막 후 외빈 접견을 위한 장소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세미나실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회의 참가국 의회 수장들은 회의 기간 동안 공식 일정 외에 한국의 아름다움과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는 문화 및 산업시찰 일정도 소화하게 된다.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다. 의장들과 함께 입국하게 될 배우자들을 위해서도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재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번 회의는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각국 의회의 후속조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의 세계화를 이루는 데 또 하나의 레일을 놓는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우리가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를 개최해 국격과 국민의 자긍심이 향상된 만큼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더 높은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자"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권오을 준비위원장은 "회의 외에 공식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며 의회 수장들이 모이는 회의인 만큼 그 위상에 맞게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공연을 준비하고, 한식을 포함한 메뉴를 구성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G

글·김성동 기자

G20 서울 국회의장회의 홈페이지 http://seoulspeakers.assembly.go.kr
트위터 http://twitter.com/g20speakers2011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speakersconsultation


중앙DB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동자승 삭발 수계식'이 지난 4월 25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에서 열렸다. 삭발 의식을 마친 동자승이 조계사 부주지 도문 스님에게 합장하며 예를 표하고 있다.


뉴시스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삭발 수계식에서 한 동자승이 합장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어린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 입니다

"온누리에 자비를…" 오는 5월 10일은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이다. 지난 4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동자승 삭발 수계식이 열렸다. 수계식에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의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정 어린이 4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의 동자승이 참석했다. 단기 출가한 동자승들은 부모님 등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삭발 수계식을 갖고 불제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활할 것을 다짐했다.

불교에서 삭발은 세속과의 구분을 짓고, 세속의 번뇌를 단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름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삭발을 한 동자승들은 어엿한 '스님'들이다. 동자승들은 부처님오신날인 5월 10일까지 조계사 경내에서 생활하며 예불과 참선, 사찰예절을 배우고, 시청 앞 점등식, 종로 연등행사, 동자승 축구시합,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원대법회, 자비의 선물 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수계식에서 조계사 행정국장 성진 스님은 "국적, 피부의 색을 떠나서 세상 모든 어린이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G

글 · 이상흔 기자

日에 있던 조선왕실의궤 조국으로

한일도서협정 일본 중의원 본회의 통과… 이르면 5월 중 귀환



지난해 11월 14일 일본 요코하마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궁내청 소장 한국 도서 반환 협정식에서 공개된 〈왕세자가례도감의궤〉.

〈조선왕실의궤(朝鮮王室儀軌)〉가 일본에 강탈당한 지 89년 만에 이르면 5월 중 조국의 품에 안긴다. 일본 중의원은 지난 4월 2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제출한 〈조선왕실의궤〉 등 한국 도서 1천2백5책을 반환하는 한일도서협정 비준안을 다수 기립 찬성으로 가결해 참의원으로 넘겼다.

중의원 본회의에서 한일도서협정이 가결됨으로써 사실상 일본 국회의 비준이 종료됐다. 오는 5월 18일 열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비준 절차가 끝나지만 조약의 경우 중의원 가결 우선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참의원에서 반대해도 협정이 발효된다.

일본 궁내청(宮內廳·왕실 담당 행정기관)에 보관돼 있다가 반환되는 한국 도서는 1백50종 1천2백5책. ▲조선왕실의궤 1백67책 ▲대전회통(大典會通) 1책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99책 ▲이토 히로부미가 반출한 도서 66종 9백38책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선조 기록 문화의 정수를 생생히 보여주는 〈조선왕실의궤〉. 조선시대 왕실과 국가의 주요 행사를 그림과 기록으로 남긴 것으로, 궁내청에 소장된 〈조선왕실의궤〉 1백67책 전부가 돌아온다. 또 〈대전회통〉은 1865년(고종 2년) 왕명에 따라 편찬한 조선시대 마지막 법전이고, 〈증보문헌비고〉는 상고 때부터 대한제국까지 한국의 문물·제도를 백과사전식으로 분류, 정리한 책이다.

반환 도서 중 무신사적(戊申事績·1책), 을사정난기(乙巳定難記·1책),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10책), 경세보편(經世補篇·9책), 박씨순충록(朴氏殉忠錄·1책), 청구만집(靑邱漫輯·6책) 등 6종 28책은 국내에도 없는 유일본이다.

우리 문화재청은 일본 국회의 도서협정 비준이 종료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을 파견해 일본 측과 공동으로 도서를 최종 확인하고 반환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도쿄를 방문하는 5월 하순께,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일본이 우리 정부에 도서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궁내청 보관 1천2백5책 반환절차 곧 실시

〈조선왕실의궤〉는 조선총독부가 1922년 강탈·반출해 일본 궁내청에 보관해 왔다.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상은 전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한국도서의 인도가 미래지향적 일한관계 구축에 도움이 되고 양국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도서협정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문화교류를 비롯한 양국 관계가 더욱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김성모 (조선일보 디지털뉴스부 기자)

의료성금 모금하는 한국의료지원재단 유승흠 초대 이사장

"'의료사각' 5백만 이웃에게 인술 나눔"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의료전문 모금기관으로, 지난 4월 12일 출범식을 갖고 국민성금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이는 비영리 민간 재단으로 연세대 의대 유승흠 명예교수가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지난 4월 2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빌딩 13층에 있는 한국의료지원재단 사무실에서 유승흠(66) 이사장을 만났다.



한용환 기자

한국의료지원재단 유승흠 이사장은 "아픈 이웃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기부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의료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모금 사업을 하는 비영리 민간 재단이다. 재단은 모금·홍보·의료비 지원·평가 등 부문별 위원회 중심으로 전문 기능을 수행한다. 초대 이사장은 연세대 의대 유승흠 명예교수가 맡았다. 재단이 내건 슬로건은 '아픈 이웃에게 희망을'이다.

한국의료지원재단(이하 의료지원재단)의 설립취지는 무엇입니까.

"희귀 난치성 질환, 암, 백혈병 등 치료비 부담으로 고통을 겪는 이웃을 위해 국민의 성금을 모으고, 그 재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운용·지원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건강을 향상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설립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의료지원재단을 설립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사람은 4퍼센트 이내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 계층과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연체한 사람들은 의료비 문제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지원재단은 이 같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저를 포함, 8명의 발기인이 뜻을 모아 재단을 출범시킨 것입니다."

의료지원재단의 주요 사업은 무엇입니까.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모금 사업, 모금 재원의 지원·평가 등입니다. 모금·홍보·의료비 지원·평가 등 각 부문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 중심으로 전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재단은 개인 기부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모금·지원 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5백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저소득층 바로 위에 있는 차상위 계층이 1백70만명,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1백60만명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자식이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 노인들이



조선DB

탤런트 황정음씨가 한국의료지원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있습니다."

의료지원재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11명의 이사진과 2명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사들이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모금위원회, 홍보위원회, 의료비지원위원회, 평가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모금위원회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나요.

"모금위원회는 대기업, 사회계, 여성계 등 5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개인들이 기부문화에 동참하는 데 의의를 두고 모금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단의 의료비 지원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성금이 아픈 이웃에게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성금 기부자에게 상세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의료비지원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재단에서는 개인이 아닌 병원이나 기관에 지원비를 보냅니다.

병원비 중 본인부담 부분을 병원에 직접 주는 겁니다. 지금은 모금 중이고 아직 지원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올 여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의료비지원위원회는 어떤 기준을 마련했나요.

"의료비지원 기준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해서 상반기 내에 의료비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한국실명예방재단, 한국혈액암협회 등 13개 의료비 지원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고, 임상·예방·간호·의료사회복지·약품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로 지원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평가위원회와 홍보위원회의 역할은.

"평가위원회는 공동모금의 재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전, 사후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홍보위원회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기부를 테마로 매월 12일 의료 취약계층의 지원과 도움을 위한 기부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탤런트 황정음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엔 어떤 것이 필요하나요.

"모금 참여를 홍보하고 권장하는 데 도움을 주면 더 좋겠습니다. 보건의료 관련 면허증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약 80만명 있습니다. 그중 절반만 참여해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단체연합회와는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계획입니까.

"수시로 만나서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지원 여부, 범위, 우선 순위 등을 전문가들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젊은 층의 기부에 기대를 많이 건다고 했는데요.

"우리 세대는 가난하게 살아서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웃을 돕는 데는 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세대들은 기부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이웃 개념은 공간적인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SNS를 통해 멀리 있는 사람까지 돕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고(故) 유일한 박사의 조카라고 들었습니다.

"백부께서는 제게 '의사가 돈 벌려고 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인기 있었던 내과, 외과보다 예방의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의료정책을 펼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재활재단에서도 20여 년간 일하셨는데요.

"누구나 재활 대상자가 될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뇌성마비 같은 선천성 질환자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후천성 질환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을 잃게 되면 질병의 고통은 물론 노동력 상실로 가정경제에 이중의 부담이 됩니다. 아픈 이웃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국민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 백시일반(百匙一飯)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G

글·서일호 기자

모금문의 · ☎02-2090-2887, 이메일 gibu@komaf12.org
기부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91-0000-000-12, 신한은행 070-1004-012012, 우리은행 1005-286-012012



연막탄이 터진다. 진흙탕도 기어야 한다. 1137기 신병들이 몸 사리지 않고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바다로 간 G20세대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낀다는 지상 21미터! 현빈이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레펠 하강 훈련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젊은이들이 군 입대를 기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해병대 지원율은 평소보다 높아졌다. 현빈(29·본명 김태평)의 자원입대는 '해병대 신드롬'까지 불러일으켰다.

KTV는 4월 27일 밤 10시30분부터 50분 동안 현빈과 또 다른 G20세대 신병들의 군 생활 모습을 특별기획 〈대한민국 해병 1137기, 그 남자의 선택〉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 3월 7일 경북 포항 해병대교육훈련단에 1137기로 입소한 현빈은 다른 신병들과 함께 4월 14일까지 가입소기간 1주를 포함해 총 7주간의 신병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백령도 6여단에 일반병으로 배치됐다.

KTV는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해병대 지원율이 평소보다 상



1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비켜라.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해안에 상륙하여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해병대 1137기 신병들의 모습이다.

2 역시 해병대에는 고무보트(IBS)가 제격! 현빈을 비롯한 1137기 신병들이 상륙기습 작전과 연안상륙작전에 사용되는 IBS를 머리 위로 들어 나르고 있다.

3 신병이라고 얕보지 마라. 우리에게는 해병대 유전자가 있다! 등으로 기어 철망 아래를 통과하는 동료 병사 옆에서 2149번 훈련병이 전방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해병으로 돌아오다

승한 것은 G20세대의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며 "젊은이들의 열정과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스스로 선택한 해병대 생활을 해내는 당당한 G20세대 해병들. 이들 '1137기 그 남자들'이 끈끈한 전우애와 뜨거운 열정을 가진 늠름한 해병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은 KBS 1TV 〈다큐3일〉을 통해 5월 1일 방송되기도 했다.

한편 해병대 블로그 '날아라 마린보이'는 지난 3월 22일부터 현빈을 비롯한 1137기 병사들의 훈련소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언제든지 차가운 바닷물에 두려움 없이 뛰어들고 강도 높은 유격훈련을 견뎌내며 진정한 해병으로 거듭나는 대한민국 G20세대 해병들을 만날 수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해병대 블로그 '날아라 마린보이' rokmarineboy.tistory.com

'센돌' 이세돌 투혼에 中구리 무릎 꿇다

비씨카드배 세계바둑 결승 5번기서 3대2로 승리… 대회 2연패

후퇴를 모르는 이세돌 9단의 투혼에 중국 최고의 명장 구리 9단도 끝내 바람 앞의 촛불처럼 흔들리고 말았다. 4국까지는 2대2로 팽팽했으나 최종국은 달랐다.

이세돌 9단이 지난 4월 28일 열린 제3회 비씨카드배 월드바둑챔피언십 결승 5번기 최종국에서 구리 9단을 꺾고 3대2로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207수 흑 불계승. 우승상금은 3억원(준우승 1억원). 23일부터 6일 동안 단 하루 쉬고 격전이 이어졌다. 대국을 모두 끝낸 가냘픈 체구의 이세돌은 오직 두 눈만 살아 있는 듯 보였다.

이세돌 9단은 1국부터 이어 온 강수 일변도의 페이스를 최종국에서도 끝끝내 밀고 나갔다. 그 투혼에 질린 듯 구리는 터무니없는 실수를 범하며 스스로 무너졌다.

전열을 재정비한 구리의 반격으로 바둑은 한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으나 최후의 승부처에서 이세돌 9단의 집중력이 빛을 발했다. 마지막에 1집반 정도로 차이가 결정되자 구리는 던질 곳을 찾아 항서를 썼다.

바둑사에 기록될 중요한 일전서 승리거둬

두 기사가 한국과 중국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이번 비씨카드배 결승전은 바둑사에 기록될 중요한 일전이었다. 한국은 조훈현 9단 대 녜웨이핑 9단, 이창호 9단 대 마샤오춘 9단, 이창호 9단 대 창하오 9단 등 한·중 정상 대결에서 모두 승리했고 여기서 패배한 녜웨이핑과 마샤오춘은 크게 상처를 입은 나머지 일찌감치 무대 뒤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번 이세돌 대 구리의 대결도 지는 쪽은 큰 상처를 피할 수 없는 '위험한 대결'로 꼽혔다. 한·중 양국의 바둑 팬들은 28세 동갑내기에다 상대 전적도 13승13패로 똑같은 두 라이벌의 외나무 대결에 관심을 집중시켰다(비씨카드배 1회 대회는 구리가, 2회 대회는 이세돌이 우승했다).

이런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두 기사는 1국부터 광풍노도의 결전을 전개했다. 3국에서 이세돌은 불리한 바둑을 역전시켜 반집승을 거둔다. 결승전 5국을 모두 돌아볼 때 이 반집이 결국 승부를 가른 분수령이 됐다. G

글·박치문 (중앙일보 바둑전문기자)


한국기원

한·중 최강자의 대결인 제3회 비씨카드배 결승전에서 이세돌 9단이 6일간의 혈전 끝에 3대2로 극적인 승리를 거둔 뒤 환하게 웃고 있다.

제3회 비씨카드배 결승 5번기 결과

대국	승자	결과
1국	구리	170수 백 불계승
2국	이세돌	184수 백 불계승
3국	이세돌	261수 흑 반계승
4국	구리	273수 흑 불계승
5국	이세돌	207수 흑 불계승

행정안전부

2011년 하반기
정부「개방형직위」공개모집

공직사회의 문이「개방형직위」로 활짝 열립니다. 지식과 정보, 소통과 변화, 당신의 역량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도전하세요! 당신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2011년 하반기 정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

2011년 하반기에 모집할 계획인 정부 내 개방형직위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부처	직위	문의처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Tel : 02)2110-7460 www.moel.go.kr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	Tel : 02)2023-4126 www.ftc.go.kr
관세청	정보관리팀장	Tel : 042)481-7672 www.customs.go.kr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과천과학관장	Tel : 02)2100-6139 www.mest.go.kr
국방부	감사관	Tel : 02)748-5092 www.mnd.go.kr
	법무관리관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Tel : 02)397-1244 www.nts.go.kr
	감사관	
	중부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	
국토해양부	감사관	Tel : 02)2110-6127 www.mltm.go.kr
기상청	감사담당관	Tel : 02)2181-0343 www.kma.go.kr

부처	직위	문의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장	Tel : 031)299-2947 www.rda.go.kr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Tel : 02)3704-9266 www.mcst.go.kr
	한국정책방송원장	
	국립중앙극장장	
	홍보콘텐츠기획관	
	장애인문화체육과장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	Tel : 02)750-2931 www.kcc.go.kr
	감사담당관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	Tel : 02)2100-2521 www.moleg.go.kr
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장	Tel : 042)481-2841 www.mma.go.kr

부처	직위	문의처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장	Tel : 02)2023-7058 www.mw.go.kr
	국립부곡병원장	
	국립공주병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사담당관	Tel : 043)719-1242 www.kfda.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국장	Tel : 02)2100-7142 www.mofat.go.kr
	감사관	
	다자통상국심의관	
	주일본대사관 문화원장	Tel : 02)2100-7150 www.mofat.go.kr
	주프랑스대사관 문화원장	
조달청	품질관리단장	Tel : 042)481-7020 www.pps.go.kr
	감사담당관	
지식경제부	우정사업정보센터장	Tel : 02)2110-5052 www.mke.go.kr
	경북체신청장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Tel : 02)2100-5662 www.unikorea.go.kr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Tel : 02)2100-3250 www.mopas.go.kr

※**유의사항 :** 상기 직위는 임기만료예정 직위이므로 사정에 따라 예정보다 조기에 선발시험이 있거나, 선발시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처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방형직위 제도는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 내외에서 우수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고위공무원단 커뮤니티 (http://gojobs.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31일 서울 종로구 종로5길 국세청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우리 국민이 절실하다고 느끼는 조세정의를 위한 실천방안들이 제시됐다.

공정과세가 공정사회 주춧돌

성실납세자는 우대해 주고 탈세자에겐 엄정한 법의 심판 내린다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한 사회. 공정사회로 가는 중요한 방안 중 하나가 조세정의 구현이다. 최근 열린 정부의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는 조세정의 실천 방안이 논의돼 과세 당국의 공정과세와 국민의 성실납세를 위한 지원과 규제가 총망라됐다.

미국 하버드대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저술한 〈정의란 무엇인가〉가 2년째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고, 커피 전문점 사이에서도 이른바 '공정무역커피'가 대세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제65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는 정치적 화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국민소득 2만 달러대의 외형적 성장은 이뤘으나 계층 간, 부문 간 격차가 확대되며 생긴 그늘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 '공정'이다.

그렇다면 공정한 사회를 우리 사회에 구현하기 위해 가장 절실한 일은 무엇일까. 지난 3월 9일 발표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천2백명의 응답자 중 41.4퍼센트가 국민의 4대 의무중 '공정'이 가장 절실한 분야는 '납세의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국세청에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을 중심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17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 뒤이은 회의다. 정부는 제1차 회의에서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 없는 사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 있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 등을 '5대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을 필두로 공정한 병역 의무,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등이 '8대 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은 공동으로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민여론 수렴작업을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제2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조세정책 및 세정운영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 | 조세정의 실천방안

변칙 탈루유형 관리 등 4가지 중점과제로

기획재정부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모범기업과 성실납세자를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우대하며, 탈세·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는 내용의 4가지 중점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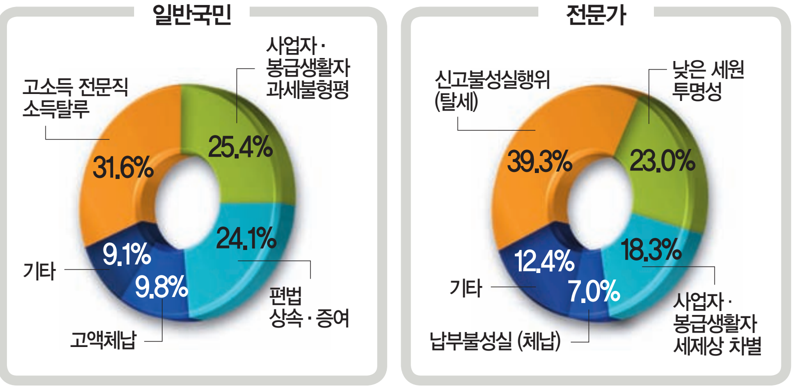
첫째, 모범기업·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확대다. 먼저 성실납세,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세제상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일시적 경영여건 악화로 납기연장·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 면제 규모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둘째, 탈세자·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신고 전 세무사로부터 사전에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의무화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내년 소득세 신고 시부터 시행되도록 추진되고 있다.

셋째, 변칙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변칙 탈루유형 중점관리 등이 검토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액체납자 관리가 강화된다.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규제 대상이 확대되며 공개되는 명단 범위가 늘고 공개 방법이 다양화된다.

일반국민 · 전문가가 보는 조세 불공정 원인



국민 503명 대상 · 한국갤럽 조사 / 산학연 전문가 257명 대상 · 한국조세연구원 조사

행정안전부 | 지방세 행정 실천과제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 7월부터 전국 확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지방세 납기 내 납부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73.1퍼센트에 머물고 있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10년의 경우 3천19명, 체납액은 1조69억원으로 2006년(1천1백49명 3천6백2억원)과 비교해 거의 3배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기 내 납부율을 73.1퍼센트에서 2012년 80퍼센트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2010년의 3만3천명에서 2012년 2만6천명 선으로 20퍼센트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성실납세자 우대와 납세 편의 개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과제를 내놓았다.

먼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방안으로 성실납세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증 혹은 표창제도, 공공기관 전용주차장 지정, 시·도립 어린이집 유아 선발 시 우대 세무조사 면제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지방세 납세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납기마감안내 문자서비스를 도입하고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한다.

체납자 관리를 위해 체납관리 공조체계가 구축된다. 전국 시·군·구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소득, 재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세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은 관할구역 밖의 자치단체도 압류,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 공정사회를 위한 국세행정 실천과제

미성년자 등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철저히 차단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행정'을 추진해 온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애국자'라는 전제 아래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인증마크(엠블럼)를 제작하는 등의 모범납세자 브랜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모범납세자 중 사회적 공헌이 큰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올해의 성실납세 대상'을 수여하고 세무조사 부담도 완화해 주게 된다.

이 밖에도 국세청과 시민이 함께하는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등 성실납세운동을 전개하며 TV퀴즈 프로그램을 활용해 세금교육도 확대된다. 탈세자에 대한 감시와 대응도 강화된다. 올해를 '역외탈세 차단의 원년'으로 선정한 국세청은 오는 6월 첫 실시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해외탈루소득 파악을 위해 외국과세당국과의 동시 조사 등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감시가 강화돼 성실신고도에 따른 조사 차등 관리, 현금영수증 발급 사후관리와 전자세금계산서 정착이 추진되며 '부동산임대업 세원관리 시스템'도 도입된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차명재산, 우회상장 등과 관련한 기업과 대주주, 거래처 등을 조사하고 미성년자 자금 출처 조사도 강화한다. 이 밖에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청 16개 팀 1백74명의 체납정리특별전담반이 지난 3월 출범해 이미 운영 중이다. G

글·박경아 기자

지구 끝까지 쫓아 탈세 뿌리 뽑는다

올 1월 출범 후 4천7백41억원 추징 성과

국세청 업무 가운데 역외탈세 조사는 가장 어렵게 여겨져 온 분야다. 나라 밖에서 이뤄지는 일을 광범위하게 오랫동안 조사해야 하는데다, 국제공조 여부에 따라 조사 내용과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곳이 지난 1월 문을 연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실이다.

서울 종로구 종로5길에 위치한 국세청의 한 사무실. 출입증이 있어야 열리는 문 너머로 문패 없는 사무실이 보인다. 부서명이 적힌 다른 사무실들과 달리 이곳 문패에는 방 번호만 적혀 있을 뿐 뭘 하는 곳인지 짐작할 수가 없다.

문패 없는 사무실 문을 열자 다시 작은 복도, 출입통제 표시가 붙은 사무실들이 보인다. 이렇게 겹겹이 출입이 통제되는 이곳은 역외탈세담당관실이다.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역외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1월 1일 출범했다.

“우리 업무에서는 보안이 ‘생명’입니다. 탈세 추적 정보가 조금이라도 새어나가면 탈세 혐의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수 있으니까요.”

역외탈세담당관실의 이광재 과장은 이렇게 말하며 “이곳 직원들의 얼굴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잡음을 막고 조사 과정에서 안전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경호 기자

사무실 명칭 대신에 ‘통제구역’이란 표지가 붙어있는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실. 해외로 유출되는 국부를 찾아내 세원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렇게 이름 없는 사무실에서 얼굴 드러내지 않는 23명이 근무하는 역외탈세담당관실은 각종 루머나 국내외 공개 자료, 외환 흐름 등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분석해 역외탈세 추적작업을 하고 있다. 23명의 직원은 같은 방에서 근무하지 않는다. 여러 팀으로 쪼개 서로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추적작업에 대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소속 직원 얼굴도 외부 공개 안 해

“공무원 조직이라고 하지만 어느 민간조직 못지않게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가 많을 때는 팀원 전원이 야근을 하며 열정적으로 조사 업무에 임하고 있지요.”

이 과장은 이곳에 ‘특수 경력’을 가진 직원들도 많다고 전했다. 역외탈세 추적을 위해 국제공조 업무가 필수이다 보니 외국어에 능숙한 ‘유학파’들이 적지 않고, 복잡한 회계 장부를 확인해 허위기재 내역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민간 회계법인 출신 직원들도 있다는 것이다.

2008년 출범한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전신으로 해 역외탈세담당관실이 정식 출범하면서 역외탈세 조사활동에 한층 탄력이 붙어 올 1/4분기 동안 총 41건, 4천7백41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2010년 한 해 동안의 역외탈세 추징액(약 5천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역외탈세담당관실이 지난 4월 12일 공개한 올 1/4분기의 역외탈세를 유형별로 보면 ▲비거주자·외국법인 위장, 조세피난처 소득 은닉(1건 4천1백1억원 추징) ▲가공매입 계상 등 수출입 거래를 통한 역

외탈세(11건 3백70억원 추징) ▲주식양도소득, 이자소득 등 국외소득 신고 누락(2건 1백41억원 추징)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등 변칙외환거래 이용 탈세(27건 1백29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화제가 된 것이 해운회사 사주 OOO씨의 역외탈세 추징이다. 그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선박 1백60척을 소유하고 국제 선박임대업과 국제 해운업을 해왔으며, 언론에서 '아시아의 해운왕'으로 불리기도 했다.



일러스트 · 홍종모

실제로 국내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경영활동을 해온 그는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것처럼 위장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은닉해 4천1백1억원의 추징세액이 결정됐다. 또 영업, 운항 등 해운사업의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인 의사결정을 국내에서 수행하여 세법상 내국법인임에도 형식적인 대리점 계약을 통해 외국법인으로 위장했다.

"역외탈세는 조세정의에 대한 도전"

국세청은 "이러한 탈세는 고도의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이며 "이러한 대규모 역외탈루와 전 세계에서의 무납부를 핵심적 경쟁우위 수단으로 삼아 사업을 확장하는 행위는 '조세정의에 대한 도전이자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탈세왕' 적발은 국제공조 네트워크 강화의 성과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에 가입했고 미국과는 동시범칙조사약정(SCIP)을 체결했다. JITSIC는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6개국으로 구성된 국제 탈세정보 교환 협의체다. 또 SCIP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소재하는 납세자에 대해 동시에 범칙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국세청은 2009년 이후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추진과제의 하나로 '역외탈세 방지'를 선정하고 국제공조 네트워크 강화와 함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신설(2010년 12월)을 통해 역외 재산은닉 제재근거 및 역외세원관리 토대를 마련했고 ▲역외탈세담당관실과 더불어 지방청 조사국에 해외탈루소득분석전담팀, 국제조사팀을 설치해 역외탈세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했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추징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역외탈세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 해외자본 유출은 국내투자 감소로 이어져 일자리가 줄고 소득과 소비, 생산의 감소로 이어진다. 또 세원 감소로 인해 정상적인 국가운영 역시 어려워진다.

이 과장은 "역외탈세 추징은 세원 확보와 더불어 외화 획득의 의미까지 있다"며 "이렇게 빼돌려진 자금이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핫머니'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제공조로 금융시장 교란하는 핫머니 차단효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역외탈세자금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핫머니로 인해 더욱 악화됐으며, 이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역외탈세 공조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게 이 과장의 설명이었다.

이러한 국제공조는 최근 징수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추징세금 부과에 그칠 일이 아니라 징수까지 실제로 실현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역외탈세 조사와 추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형 역외탈세 추징으로 국민 여러분의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역외탈세 행위를 추적해 추징세금을 거둬들여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국세청 홍보대사' 배우 황정민 · 탤런트 한효주

"세금도 누린 만큼 내는 게 당연하죠"

배우 황정민과 탤런트 한효주. 두 사람은 국민적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 외에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모범납세자라는 사실이다. 이처럼 이름이 잘 알려진 연예인이나 대기업 말고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 찾기가 어렵지 않다. 묵묵히 자신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이 진정한 공정사회 지킴이가 아닐까.



국세청

4월 21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황정민, 탤런트 한효주씨는 올해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이기도 하다.

배우 황정민씨와 탤런트 한효주씨가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나란히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조세의무 이행'에 관한 시험이 있다면 대한민국 1등상을 받은 셈이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21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 자리에서 황정민은 "음식을 사 먹거나 물건을 사면 값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세금 역시 우리가 누리는 혜택에 대한 대가이니만큼 성실하게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효주는 "국세청 명예홍보위원으로서 연기 활동도 열심히 하고 세정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황정민–한효주 두 홍보위원은 앞으로 2년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청의 정책과 노력을 알리기 위해 홍보포스터 모델, 영상물 출연, 가두캠페인, 세금신고 안내 도우미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성실납부 · 기업이윤 사회 환원하는 **태원전기산업**

서울의 관광명소 청계천. 도심 속에서도 탁 트인 공간을 만끽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찾는 이곳은 밤에도 은은한 경치를 즐기려는 행인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청계천의 밤을 밝히는 조명기구를 만든 업체가 1984년 창업한 조명전문기업 태원전기산업이다.

태원전기산업은 국내 조명업체로는 처음으로 2008년 연매출 1천억원을 돌파한 이 분야 1위 기업으로, 올해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납세 모범기업이기도 하다.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72억5천만원을 비롯해 각종 국세를 모두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국가 세수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은 것이다.

태원전기산업에서 만든 제품들은 효율이 높아 공공시설은 물론 유명 호텔, 박물관, 브랜드 아파트 등 이름만 대면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다 알 만한 건물에 설치돼 있다.

또한 디자인도 뛰어나 4년 전부터 각종 국제 대회에서 수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세계 3대 디자인어워드인 '레드닷' 'IDEA' 'iF'에서 모두 수상작을 배출하는 등 국제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중견간부 이상 임원들의 이직이 거의 없어 직원들의 애사심이 강한 회사로도 알려진 태원전기산업의 이세용 대표는 이번 수훈과 관련해 "모든 경영 업무에 있어 기본과 원칙을 중시해왔고 전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해 준 덕분"이라며 직원들에게 공로를 돌렸다.

30년 한 우물 '명품 같은 국산 브랜드' **소다(SODA)**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제화매장. 세련된 차림의 직장인 이유정(35)씨는 화창해진 날씨를 맞아 기분전환도 할 겸 평소 사고 싶었던 '신상' 구두를 사러 나왔다. "평소 사고 싶었던 제품"이라며 이씨가 골라 든 제품은 국산 수제화 브랜드 '소다(SODA)' 제품. 디자인이나 품질을 보고 수입 브랜드가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다는 순수 국내 중소기업이다.

1976년 명동에서 '밀라노양화'라는 구두점으로 출발한 소다는 1984년 법인 전환 이후 지금까지 30년 이상 제화에만 주력해 연매출 1천억원대 규모로 성장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의 성실한 세금 신고·납부를 인정받아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매년 불우한 이웃과 이재민 돕기에 임직원들이 모은 성금과 물품을 기증하며 사회적 공헌에도 뒤처지지 않는 중소기업 소다는 열심히 일해 번 돈을 성실한 납세의무 의행으로 다시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주식회사 소다 박근식 대표이사는 이번 훈장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제화 업계는 물론 앞으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가로서 사회공헌을 위해 책임과 사명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시민의 발… 나라살림에도 큰 기여 **대창운수**

대창운수는 현재 3백12대의 차량을 보유, 광주 시내버스(9백10대) 중 3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 지역 최대 운수업체다.

1966년 설립된 대창운수에는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전통이 있다. 바로 월급 지급일을 준수하는 것이다.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변화무쌍한 경제환경 속에서 한결같이 지키려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회사가 사원들과 맺은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킴으로써 사원은 물론 그 가족들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또한 대창운수는 올해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모범납세 기업으로 선정돼 국가와의 약속에도 성실한 기업임을 입증했다.

고재일 대창운수 대표이사는 "많은 세금은 열심히 일한 증거라고 본다. 특별히 세금을 잘 내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며 겸손해했다.

남광건설과 **천안 드림안과**의 성실납세

지난해 4월 2일~5월 9일 열린 광주 광(光)엑스포 주제전시관. 우주와 행성을 형상화한 독특한 디자인에 빛과 분수를 이용한 화려한 야경으로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 건물을 지은 업체는 전남 지역 굴지의 건설업체인 남광건설이다.

건설업계 하면 '비리의 온상'으로 보는 세상의 시각도 있지만, 남광건설은 투명한 경영공시와 모범적인 납세로 올해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1970년 설립된 남광건설은 2009년 기준으로 '17년 연속 흑자기업'과 '직원당 순이익 우수기업'에 선정될 만큼 내실 있는 중소기업이다. 지난해에는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광주 광엑스포 주제전시관)을 수상해 실력도 인정받았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다. 하지만 변화무쌍한 경제환경 속에서 규모 작은 기업들이 성실납세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모범납세자로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던 천안 드림안과 김성진 원장은 이렇게 조언했다.

"소득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미리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납세가 특별히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세금에 대한 부담감은 납세자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어렵거나 재정적으로 힘들다면 평소 대비해 두는 등 관심을 갖고 준비한다면 모두 성실납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G

글·남창희 객원기자

“세금은 뺏기는 게 아닌 돌려받을 돈”

세금이 쓰이는 과정이 널리 안 알려져 국민들이 박탈감 느껴



염동우 기자

지난해 국세청 대학생홍보단으로 활동한 전성배씨(왼쪽)와 한성경씨. 이들은 홍보단 활동을 통해 보람과 함께 세법 지식도 덤으로 얻었다고 한다.

“국민 대다수가 세금에 대해 ‘뺏긴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세금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싶었어요.” – 전성배 (26·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세무서마다 ‘납세자 민원상담 창구’를 설치하는 등 일반인들이 손쉽게 세무처리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데 홍보 부족으로 이용이 적은 것 같아 안타까워요.” – 한성경 (22·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이들은 2010년 한 해 동안 국세청 대학생홍보단으로 활동했다. 대학생홍보단은 창의적인 세정홍보 콘텐츠 제작과 확산, 공정세정 및 성실납세 문화 전파를 위한 홍보 활동을 수행해 왔다. 전씨와 한씨는 지난해 블로그, 손수제작물(UCC)을 비롯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금에 관해 널리 알리는 활동을 했다.

대학생홍보단의 회장으로 활동했던 전씨는 “세금은 결국 국민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돌아오지만 그 과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많은 국민이 세금 납부에 대해 박탈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세금이 갖는 ‘딱딱하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겨내기 위해 대학생홍보단은 다양한 UCC를 제작했다. 대학생홍보단의 UCC는 코믹하면서도 꾸미지 않은 풋풋한 내용이 인기를 얻어 블로그상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영화나 TV 드라마 속 장면 중에서 세법과 관련된 것들을 추려내 세법과 우리 일상이 그리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알렸다. 특히 개그맨 유세윤의 노래를 패러디한 ‘현금영수증 해야 해’ 같은 화제의 UCC도 이들이 흘린 땀의 성과였다.

평소 홍보에 관심이 많아 대학생홍보단에 지원했다는 한씨는 “활동기간 동안 세금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다. 덕분에 그전에는 미처 몰랐던 세법 지식이 쌓여가는 재미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저희가 직접 만든 UCC가 블로거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는 것을 보면서 학교 공부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성취감과 보람을 찾을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즐거웠어요.”

코믹하면서 풋풋한 UCC 제작 큰 인기

국세청에서는 오는 5월 11일까지 ‘국세청 대학생홍보단’을 모집하고 있다. 전씨나 한씨처럼 의욕 넘치는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홍보 아이디어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좋다”라고 한씨가 ‘후배 지원자들’에게 격려의 한마디를 던졌다.

“어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긍정적인 성격,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설득력, 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창의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다 친숙한 ‘세금 알리기’에 한몫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G

글·이윤진 객원기자

문의·국세청 대학생홍보단 ☎02-518-9985

김문수 국세청 차장

“세금낭비 감시하는 시민의식 필요”

“국내탈세는 탈루자금이 국내에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만, 역외탈세는 유출자금이 통째로 탈루되고 국부가 유출되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김문수 국세청장은 최근 국세청이 대규모 역외탈세를 적발해 5천억원 가까운 추징세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하며 “국부를 통째로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준호 기자

이러한 초대형 역외탈세 사례를 조사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역외탈세 조사는 국내 조사보다 훨씬 더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역외탈세는 외국에서 글로벌 조세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뤄집니다. 다단계 해외 페이퍼컴퍼니 및 주식 해외신탁을 통해 최종투자자를 은닉하고, 탈루소득은 금융비밀이 철저하게 유지되는 역외금융센터를 통해 관리합니다. 특히 이번 역외탈세 사례에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전략(Worldwide Zero Tax Scheme)에 따라 국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 위장함으로써 증거자료 수집에 수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우리의 과세와 납세에 관한 의식과 관행은 어느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그간 전반적인 납세의식의 향상, 과세인프라와 세정의 고도화 등으로 세원 투명성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2005년 57퍼센트에서 2010년에는 39퍼센트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 또는 취약분야의 고질적 세금 탈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부 계층의 탈세 행위는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어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앞으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소득이 자동 노출되도록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원 투명성을 점차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정사회로 가는 길에 있어서 공정과세 성실납세가 왜 중요합니까.

“세금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선진시민의 사회적 책임’ 또는 ‘공공서비스 혜택(benefit)에 대한 대가’ 라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세금 내는 것이 아깝지 않도록 국세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걷고, 정부기관들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써서 세금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공정한 과세·납세를 위한 국세청의 과제는 무엇인지요.

“공정한 과세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탈세자는 엄정하게’ 대우함으로써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무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애국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 변칙 상속·증여 행위, 재산은닉 체납자 등 고질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우리 국민과 세무 공무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세정이 신뢰받지 못하면 국민들의 성실납세 의식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납세자의 권익은 최대한 존중하되 탈세자는 엄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국세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를 총체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과세를 위해서는 투명한 세정운영과 청렴·공정한 공무원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성실납세 문화 정립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나만 성실납세하면 된다는 소극적 인식을 넘어 타인의 탈세와 정부의 세금낭비를 감시하는 ‘적극적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깨어 있는 시민의식이 공정한 사회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G

글·박경아 기자


beyond the border
No.1 THERMAL POWER COMPANY
한국중부발전(주)
http://www.komipo.co.kr
바람 참 좋다
푸른 초원, 시원한 바람이 상쾌합니다
생명의 씨앗을 옮기는 바람이 따듯한 온수로도, TV, 냉장고, 에어컨을 움직이는
에너지로도 바뀐다니 시원한 바람이 고맙게만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또, 환경오염도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으니까 북극의 곰도 아기펭귄도
이 상쾌한 바람을 맘껏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에너지,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에너지
한국중부발전이 친환경에너지로 '함께 살아가는 지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획특집

철밥통 공기업 혹독한 변신중

공기업은 한때 '신이 내린 직장'으로 불렸다. 하는 일 없이 높은 보수를 챙길 수 있다는, 야유 어린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지금은 아니다. 강력한 선진화 정책으로 환골탈태하고 있다.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역동적이면서 알뜰살뜰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 초기의 정착 단계를 거쳐 성숙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새로운 역할도 고민하는 등 더 높은 경지를 향하고 있다. 국민들도 이들의 변신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2011년, 공기업의 혁신과 선진화는 현재진행형이다.



28 공기업이 바뀐다
30 중소기업은행
32 한국중부발전
34 축산물품질평가원
36 코트라
37 한국남부발전
38 국립공원관리공단
40 교통안전공단
42 전문가 쓴소리





일러스트 · 주만성

군살 빼고, 체력 키우고… 변해야 산다

3년간 전방위 개혁… 기관통폐합·민영화 등 고삐 조여

'변화를 확산하라.' 지난 3년간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군살을 빼고 효율을 높였다. 느슨한 조직문화는 팽팽하게 당겨졌다.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간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를 '체질개선과 체력강화'라고 표현했다. 또 다른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 선진화의 첫발을 내디딜 때 많은 사람이 공공기관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과거 어느 정부보다 강력하게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한 결과 정원 감축, 기관 통폐합, 노사관계 선진화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3월 25일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성과의 공유·확산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공공기관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는 적잖은 결실을 맺고 있다. 3년 동안 여섯 번이나 계획이 발표될 정도로 전방위적인 개혁과 변화가 추진됐다.

역대 정부 역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생산성은 낮으면서 보수는 과대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오히려 인력과 예산이 느는 등 비대해졌다.

정부는 공공부문 선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고 과감한 '수술'을 시작했다. 국민경제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공공기관을 탈바꿈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먼저 몸집을 줄였다.

1백29개 기관에 대한 감원을 실시해 모두 2만2천명의 인력을 감축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는 등 업무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36개 기관을 16개 기관으로 통합했고 5개 기관은 폐지했다.

감원·연봉삭감 등 혹독한 '다이어트'

민영화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매각과 상장을 통해 24개 민영화 대상 기관 중 7개 기관을 민영화했다. 출자회사도 정리했다. 1백31개 출자회사 가운데 절반 이상인 74개를 줄였다. 경제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을 축소해 민간부문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



연합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경영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선진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고 시장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였다.

보수체계도 손질했다. 기관장과 감사의 연봉을 각각 19.8퍼센트, 23.6퍼센트 내렸고 대졸 초임 연봉도 평균 15퍼센트 줄였다.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기도 했지만 비용절감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노사관계도 선진화됐다. 경영평가와 경영공시를 강화하는 등 노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 서로 맞서기만 했던 관행이 눈에 띄게 사라졌다. 2009년 13건이던 노사분규가 2010년 3건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근로손실일수는 8만7천일에서 3만8천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차관은 “공정한 법 집행과 건전한 노사협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노사분규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노사관계가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공기관 노사의 자율적 노력을 통해 불합리한 단체협약도 많이 개선됐고 타임오프제도도 원만하게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속적이고 과감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국민들의 지지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지난 1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 선진화의 필요성에 대해 83.5퍼센트가 ‘그렇다’고 답했다. 2009년 80.3퍼센트보다 높아진 수치로 선진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규직·인턴 1만명씩 신규 채용… 청년일자리 창출 앞장

적잖은 성과를 창출한 것이 사실이지만 갈 길은 아직도 멀다.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라는 진단도 이어지고 있다. 윤증현 장관도 “국민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맞추어 공공기관의 역할도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며 “고객만족경영, 청년일자리 창출, 공정사회 구현 등에서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이후 공공기관 선진화는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우선 정체되어 있는 민영화와 지분매각을 촉진하고 노사관계 선진화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기존의 선진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확산한다. 자율·책임경영체제도 다져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개 기관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경영자율권을 올해 6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자율경영체제를 넓혀나가고 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에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먼저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불요불급한 인력을 감축하는 동시에 해외진출 신성장동력 발굴, R&D 등 신규 부가가치 창출 사업에 대해서는 인력을 적극적으로 증원한다. 올해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1만명, 청년인턴 1만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해외진출도 활성화한다. 유가와 곡물가가 치솟는 등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실적은 전년 대비 27.8퍼센트 증가한 59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해외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G

글·변형주 기자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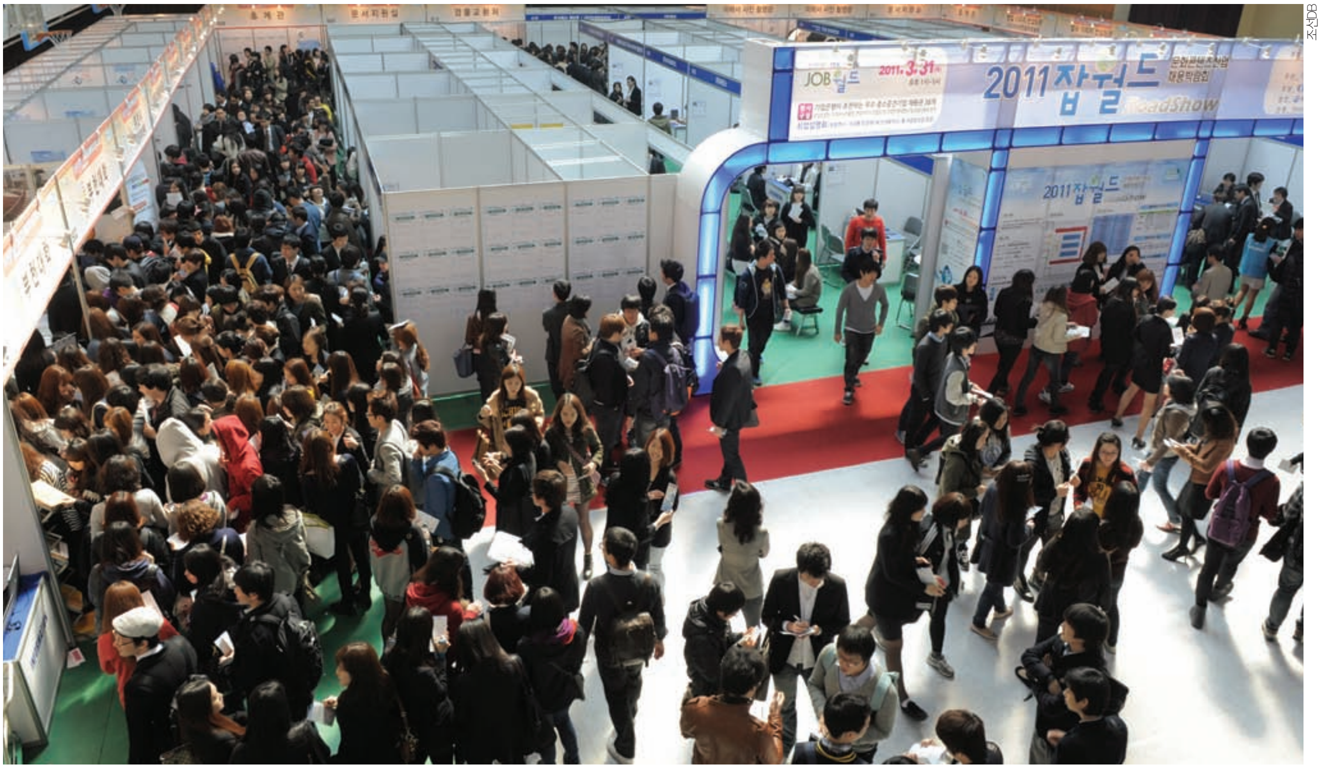
구분	선진화 계획	추진현황
정원 감축	129개 기관(2만2천명)	경영 효율화 대상기관 모두 정원 감축 완료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 해소 추진 중)
통합	36개 기관 → 16개 기관	주·토공 등 36개 기관 통합 완료 (16개 통합기관 출범)
폐지	5개 기관	모두 폐지 완료
민영화	24개 기관	7개 기관이 매각 상장 완료 (나머지 17개도 자산평가 등 매각절차 추진 중)
출자회사 정리	131개 출자회사	74개 출자회사 정리 완료 (나머지 57개도 매각공고 등 매각절차 진행 중)
기능 조정	20개 기관	12개 기관이 기능조정 완료
경쟁 도입	2개 기관	2개 모두 2011년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 (관련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보수체계 합리화	기관장 감사 기본연봉 하향 조정(2008년 6월) • 기관장(104개 기관) : 차관급(1억8백만원) • 감사(56개 기관) : 기관장의 80퍼센트 수준	대상기관 모두 하향조정 완료 • 기관장 : 평균 19.8퍼센트 인하 (1억3천7백만 → 1억1천만원) • 감사 : 평균 23.6퍼센트 인하 (1억2천만 → 9천2백만원)
	대졸초임 인하 권고 (2009년 2월) • 252개 기관, 평균 15퍼센트	대상기관 평균 15.3퍼센트 인하 (2천만~4천만원 → 2천만~3천만원) • 대졸초임 평균 : 2천9백만원(개편 전) → 2천4백만원(개편 후)
	금융공공기관 기존직원 보수 삭감 (2009년 10~12월) • 10개 기관, 5퍼센트 이상	대상기관 모두 삭감 완료 •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예보, KAMKO 등 10개 기관
	간부직 대상 성과연봉제 표준모델 권고 (2010년 6월)	도입 현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중
노사관계 선진화	노사관계 항목의 공시 (2009년 3월) 및 평가 (2009년 4월) 반영	**공시** 노사관계 항목 공시 대상 포함 (2009년), 공시주기 단축 및 수시공시 확대(2010년) **평가** 기관장 평가시 평가 반영(2009년~), 평가 비중 확대(15 → 20퍼센트)(2010년)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백서〉 · 2010년 말 기준

책임경영 했더니 사상 최대 실적 '열매'

지난해 순이익 1조9천억원… 금융위기 3년 만에 '순이익 1조 클럽' 재가입

지난해 기업은행은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시행된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경영의 자율권을 강화해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중소기업 자금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도 강화됐다.



조선DB

기업은행은 구직자와 구인자의 만남을 주선하는 잡월드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약 3만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사진은 지난 3월 31일 기업은행이 개최한 채용박람회 모습.

2009년 말의 일이었다. 정부는 낯선 사업을 시작했다.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경영자율권 확대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경영자율화를 통해 선진화 성과를 더 높여나간다는 구상이었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참여 공공기관을 모았고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참여기관을 선정했다. 모두 4곳이 2010년 경영자율권 확대 사업 대상으로 뽑혔는데 금융기관 중에서는 기업은행이 유일했다.

기업은행이 경영자율권 확대 사업에 참여한 것은 시중은행과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신속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기업은행은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대출은 25.4퍼센트 증가한 반면 인원은 1.7퍼센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인원이 모자랐지만 증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공공기관인 탓에 인원과 조직을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자율권 확대는 '가뭄 끝의 단비'와 같았다. 정원의 10퍼센트 안에서 인력을 늘릴 수도 있고 직위와 직급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경영자율권 확대 사업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에 자율권을 주는 만큼 책임을 요구했다. 1년에 한 번 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미흡한 경우 자율권은 회수

되고 기관장이 자진 사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험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인 셈이다.

기업은행의 성과 목표는 지속성장의 토대 구축, 영업역량 제고, 중소기업 자금공급 강화 등 3가지였다. 사업 시작 1년 후, 기업은행이 2010년 실적 발표를 했다.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먼저 실적이 크게 향상됐다. 지난해에 순이익이 역대 최대인 1조 9천억원을 달성해 3년 만에 '순이익 1조 클럽'에 재가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빠져나와 재도약의 힘을 보여준 셈이다. 실적 도전은 올해에도 이어졌다. 지난 1분기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당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1퍼센트 증가한 5천6백 72억원을 기록했다.



조선DB

기업은행은 지난해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후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았다.

영업역량 강해져 초고속 실적 개선

영업역량도 강해졌다. 열세로 지적됐던 개인 고객이 크게 늘고 있다. 2008년 7백91만명에서 2009년 8백96만명, 2010년 9백43만명을 돌파했고 1천만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소액이어도 높은 금리를 주는 '서민섬김통장' 등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짚은 신개념 상품을 개발한 것이 큰 힘이 됐다.

중소기업 금융도 강화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중은행들은 몸을 움츠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억제했다. 경제위기에서 돈줄이 막힌 중소기업들의 고충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기업은행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금고를 열었다. 2010년 은행 전체 중소기업대출이 9천억원가량 줄어드는 상황이었지만 기업은행의 대출은 5조2천억원 증가했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 전체의 신규 중소기업대출 19조3천억원 가운데 기업은행은 91퍼센트인 17조6천억원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의 동반자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대출만 많이 해준 것이 아니라 관리 측면에서도 은행업계를 선도했다. 연체율이 업계 평균보다 현격히 낮았다. 2010년 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은행업계의 평균인 1.39퍼센트보다 0.41퍼센트포인트 낮은 0.98퍼센트였다.

일자리 창출, 서민금융, 소외계층 후원 등 공공기관에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도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09년 문을 연 취업 포털인 잡월드를 통해 2011년 4월 27일 현재까지 2만8천5백80명을 취업시켰다. 기업은행의 우수한 중소기업 고객과 취업자의 만남을 주선해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구조다. 올해는 3만5천명, 내년엔 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채용박람회도 열고 있다. 구직과 구인이 모두 어려운 지방을 돌며 현장 채용을 도모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에서 16회에 걸쳐 박람회를 개최해 3천여 명이 일터를 찾았다.

재취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40~50대의 베이비부머들을 위해 잡월드 사이트에 '4050 채용관'을 운영하고 있다. 우수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퇴직자들과 중소기업을 연결시켜 주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6천여 명이 '인생 2모작'에 성공했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도 3만명 육박

금융상품과 서비스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판매 금액의 일부를 일자리 창출 후원금으로 조성하는 '일자리 나눔 통장',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인건비를 제공하는 '일자리창출기업지원 특별우대펀드', 제조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좋은 업종 가운데 4050세대가 대표자인 기업에 대출금리를 감면해 주는 '4050세대 창업자금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서민금융도 강화하고 있다.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인 미소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만도 서울과 부산에 신규 지점을 열어 현재 총 7곳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미용사 희망대출', '전통시장 상인대출', '용달사업자 대출' 등 IBK미소금융재단에 특화된 상품도 개발했다. 연 4.5퍼센트 고정금리로 창업과 운영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IBK미소금융에 50억원, 미소금융중앙재단에 1백 27억원 등을 추가로 출연했다.

소외계층 후원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IBK행복나눔재단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에 치료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직원 중 희망자에 한해 월급여의 0.2퍼센트를 기부해 'IBK사랑나눔기금'을 조성하는 등 자원봉사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G

글·변형주 기자

협력사를 중견기업으로 '동반발전'

5년간 기술개발에 2백60억 무상지원… 제품구매도 6천3백억 달해

한국중부발전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제품 구매, 판로확대, 인력금융 지원 등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 5년간 기술개발 등을 위해 2백60억원을 무상 지원했고 6천3백억원어치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이로 인해 '공공구매 촉진 국무총리상', '신기술실용화 국무총리상', '아름다운 동행 지경부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실적을 인정받아 올해 초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중소기업의 국산화 기술 개발·사업화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한국중부발전(사장 남인석) 발전처 동반성장팀의 김태연 차장은 중소기업을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회사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이하 중부발전)은 기술개발, 중소기업 제품 구매, 판로 확대, 인력금융 지원 등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최근 5년간 기술개발 등을 위해 2백60억원을 무상 지원했으며 6천3백억원어치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국내외 전시회, 해외벤더 등록, 수출촉진, 홍보동영상, 해외네트워크 구축 등 5개 수출지원 사업을 패키지화한 '수출산업화 특화지원'도 했다. 국제 수출전시회 3회, 해외 수출로드쇼를 6회 개최했으며 1백90개 협력사를 전력그룹사 공동으로 지원하여 16억 달러어치의 수출 상담을 했다.

이러한 지원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중부발전은 '공공구매 촉진 국무총리상', '신기술실용화 국무총리상', '아름다운 동행 지경부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중부발전은 2001년 4월 출범했고 보령화력본부, 인천화력본부, 서울화력발전소 등 전국 6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 전시회 등 수출산업화 특화지원

중부발전에는 'KOMIPO(한국중부발전)-BEST 상생협력사' 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을 'KOMIPO-BEST 상생협력사'

한국중부발전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중부발전은 전국 6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충남 보령시에 있는 화력발전소 보령화력본부.



한국중부발전은 최근 5년간 기술개발 등을 위해 2백60억원을 무상 지원했고 6천3백억원어치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사진은 중소기업 제품 설명회.

로 선정해서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지원사업이다. 1기(2008~09), 2기(2010~11)로 나누어 20개사를 'KOMIPO-BEST 상생 협력사'로 선정했고, 기술개발, 판로 확대,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시 가점을 부여해 참가 기회를 확대해 주고 있다.

중부발전은 국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도 활발한 사업과 지원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그로보강 지역은 탄중자티 발전소와 인접한 지역인데, 중부발전은 성공적으로 인도네시아 진출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학교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학교가 건립될 자바섬 중부의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중부발전은 내년 5월까지 교실 6개, 도서관, 화장실, 식수시설을 갖춘 건물을 신축하고 학교 기자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학교 건립을 통해 2백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혜택을 받고, 학교에 설치될 화장실과 식수시설 등을 통해 마을 주민들도 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진출 현지학교 건립도 추진

중부발전은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6백60메가와트)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왐뿌 수력발전 사업의 전력구매 계약도 체결했다.

전략기획팀 김혜정 차장은 "보령화력 3호기 4천일 이상 무고장 운전을 달성하는 등 우수한 발전운영 기술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해외사업에 진출하고 있다"면서 "작년에는 발전회사 최초로 해외발전소 건설사업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에 성공함으로써 더욱 더 해외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G

글 · 서일호 기자

남인석 한국중부발전 사장
"아시아를 넘어 세계 발전시장 개척 중"



올해 중부발전의 동반성장정책 기본방향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과 해외 발전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2011년 동반성장 추진전략을 수립했으며 전사적인 동반성장 실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올해 동반성장 추진전략은 4대 전략, 3대 핵심특화과제, 37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개발과 경영 · 생산성 향상에 66억원,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1천1백50억원 등 약 1천2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외시장 진출지원, 녹색기술 공동개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의 원칙이 담겨 있는 3대 핵심특화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작년에 수립했던 '3P-2012' 경영방침의 추진성과는 어떻습니까.

"변화와 혁신을 위해 창사 이후 처음으로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이 전원 참여한 경영선진화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3P참여 활성화를 위한 'KOMIPO 비전스쿨'도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Fortune 일하기 좋은 한국기업' 공공부문 본상 수상, 2010년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결과 발전회사 최고 등급 'AAA' 달성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P는 Pride, Professional, Profit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선포한 뉴비전의 추진배경은 무엇인가요.

"지난 1월 시장형 공기업 지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기후변화 협약과 같은 전력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게 된 동기입니다. 'Global Clean Power Company'라는 기존의 비전보다는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도전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비전을 수립하여 글로벌 경쟁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목표가 필요해졌습니다."

뉴비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로 'Great 2020!'이라는 슬로건 아래 4대 전략목표와 16개 세부 전략과제를 마련하여 성과지향적인 조직으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4대 전략목표는 국내 발전 리더십 확보, 해외시장영역 다각화, 저탄소녹색성장, 글로벌 경영체제 구축 등이며 그 하부에 각각 4개의 전략과제를 두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0년 중부발전의 미래 모습은 어떤 건가요.

"중부발전은 뉴비전 'Beyond the Border No.1 Thermal Power Company'를 통해, 국내를 벗어나 아시아를 넘어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발전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규모 면에서 국내 1위 발전회사가 되고, 비즈니스 측면에서 해외사업 비중 50퍼센트로 아시아 1위가 되며, 발전기술 측면에서 열효율 45퍼센트 이상 달성하여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킨십 경영'에 9년 무분규로 화답

노사발전위원회 신설… 노사간 쟁점은 분기별 회의서 사전에 해결

고객만족도 평가 꼴등에서 우수로 올라선 공공기관이 있다. 지난해 3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축산물품질평가원이다. 비결은 노사의 상생협력 실천에 있었다. 노사관계 선진화의 우수사례로 대표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을 들여다봤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해 노사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직원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처럼 '공기업 선진화'는 노사 간의 힘겨운 줄다리기가 아닌 노사가 함께 이끌어갈 협력의 줄다리기다.

고객들의 평가는 냉혹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2004년도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변화를 선택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이 되자'는 기치 아래 노사가 변했다. 먼저 경영효율화를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에 집중했다.

노사가 대립이 아닌 화합의 관계로 변하자, 이는 고객만족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94.6점으로 준정부기관 중 최상위 수준이었다.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고객중심의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였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다 보면 으레 발생하는 문제가 노사 대립이다. 정원감축, 전직원 연봉제 등의 경영효율화에는 직원들의 고통 감수가 따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역시 처음에는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노사 간의 직접적인 대화창구를 넓힌 '스킨십 경영'으로 지난해 노조창립 이래 9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체결을 달성했다.

이런 '스킨십 경영'이 주효했던 것은 2009년 단체협약 개정을 추진하던 때였다. 기존의 단체협약에는 노조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내용이 많았다.

정연복 경영지원팀 차장은 "이전에는 노동조합 간부의 경우, 인사발령 시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었다"며 "이 때문에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단체협약 전면개정에 들어갔다. 협약 중 노조의 인사·경영권 침해조항을 삭제하고 과도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축소했다. 전직원 연봉제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한 조문도 신설했다.

당연히 노조의 반발이 뒤따랐다. 노조는 성명을 발표하고 기관장실을 방문해 항의하는 등 강경입장을 취했다. 여기서 기관장의 리더십이 발휘됐다. 기관장이 직접 전국 10개 지회를 돌며 설득에 나선 것이다.

노사 공동으로 정원 감축 ·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이 발전하고 안정적으로 가려면 지금과 같은 단체협약으로는 답이 없다"는 기관장의 호소에 사원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두 달간의 지역별 간담회가 이어진 끝에 노사가 합의점을 찾았다. 대화의 힘이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인천 덕적도에서 가진 1박2일의 워크숍이었다. 최승덕 기획경영본부장은 "노사가 한자리에 모여 끝장토론을 벌였

다”며 “서류가 아닌 기관장이 직접 노조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스킨십 경영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협약 개정안에 대한 직원들의 찬성투표율이 98퍼센트 이상으로 높아졌다.

2009년 9월, 노사 합의하에 단체협약이 전면 개정됐다. 노사가 공동으로 정원감축, 전직원 성과연봉제 도입 등의 경영효율화를 추진했다. 노사가 함께 공공기관 선진화에 앞장선 것이다.

노사발전위원회도 신설했다. 노측과 사측 대표자 12명으로 구성된 노사발전위원회는 노사 간 문제될 만한 것을 분기별 회의를 통해 사전에 해결한다. 내부에 고충처리위원회도 둬 직원들의 불편한 점을 수시로 개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원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졌다. 지난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직원만족도 조사결과, 근무환경과 기관장 리더십, 기관의 발전 가능성 부문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

매년 캐치프레이즈 선정, 조직 일체감 높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노사상생 실천을 위해 매년 공동으로 캐치프레이즈를 선정한다. 2007년 처음 선정한 캐치프레이즈는 ‘마음을 열면 우리가 보여요’였다. 직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변화는 성공적이었다. 이후 지속적인 캐치프레이즈 선정으로 노사가 한마음으로 뭉쳐 조직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09년 노동부가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으로 인증하고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부문에서 기관표창을 받았다.

캐치프레이즈는 노사화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 나눔으로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노사는 ‘마음나눔 2010’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했다. 직원 1인당 1.3장의 헌혈 증서가 기부되고 지역 시설 봉사활동이 이어졌다. 지역민을 돕는 ‘일사일촌(一社一村) 봉사활동’을 통해 농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생겼다. 직원들이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고객만족도는 자연스레 높아졌다.

올해 캐치프레이즈는 ‘Learn! & Run! 2011’이다. 노사발전위원회 경영자측 대표를 맡고 있는 최승덕 기획경영본부장은 “올해는 학습을 통해 직원 역량 강화로 고객들에게 더 높은 만족도를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는 우리 사회 전반의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공공기관이 앞장선 노사관계 선진화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G

글 · 이제남 기자

최형규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일하고 싶은 직장, 즐거운 직장 만들기 노력”


조선DB

최형규 원장은 ‘살맛 나는 직장’을 목표로 한다. 직원이 변하지 않으면 공기업 선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신념에서다.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변해야 합니다. 직원 의식이 변하지 않았는데 제도만 도입해서는 겉으로만 선진화되는 것이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 ‘고객중심의 투명경영 실천’, ‘경영효율화 추진계획 이행’, ‘내부 혁신역량 강화’라는 4대 혁신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다. 이 중 최 원장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내부 혁신역량 강화’다. 지난해 취임한 최 원장은 사내 프로그램으로 GWP와 PPK를 도입했다.

가장 훌륭한 일터를 의미하는 GWP(Great Work Place)는 ‘일하기 좋은 기업 만들기’ 프로그램이다. 최 원장은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는 줄이고 일의 효율성은 높이기 위해 GWP를 도입했다”며 “직원들에게 산악회, 소프트볼 등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여 ‘일하고 싶은 직장, 즐거운 직장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PPK(Professional Program of KAPE) 역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전문 교육프로그램이다. ‘KAPE’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영어 약자다.

최 원장은 “개방화 시대에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최대한 뒷받침하기 위해 ‘창조적 핵심인력 양성프로그램(PPK)’을 도입했다”며 “직위에 따른 자질향상과 리더십교육, 축산물품질평가 전문교육, 자기계발교육 등의 맞춤형 교육으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면서 기관의 역할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축산물등급판정만 담당했지만 지금은 쇠고기이력제 추진, 우수축산물브랜드 육성, 품질평가에 대한 연구조사사업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업무가 다양화됐다.

최 원장은 “업무량이 많이 늘었지만 정원은 4년 전 그대로”라며 “인력 효율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올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소, 돼지, 닭, 달걀 이외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축산물에 관한 모든 정보를 집대성한 ‘축산물종합정보시스템(e-KAPEPIA)’도 구축 중에 있다.

최 원장은 “앞으로 축산물품질평가 대상 품목을 오리, 벌꿀, 우유로까지 확대해 국내 농가들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저희 원의 비전”이라며 “축산물 정보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축산물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직원들을 축산물유통전문가로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난 중소기업·퇴직 무역베테랑 '중매'

채용박람회 열어 구직자·구인 요구 사전에 파악… 성사율 높여



조선DB

코트라는 해외 사무소에 인턴으로 파견 보내는 '지사화 인턴 프로그램' 등 해외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중소 물류업체에 근무하는 K씨에게 지난해는 행운의 시간으로 기억된다. 사업 실패로 궁지에 몰렸던 그에게 재취업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것도 해외 비즈니스라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였다. 마흔아홉이라는 나이를 감안하면 더욱 감사할 따름이었다.

K씨가 재기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퇴직 전문인력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덕이었다. 코트라는 지난해부터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50대 전후의 퇴직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소개하는 자리다. 인재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선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김병호 코트라 기조실 차장은 "지난해 개최한 채용박람회에 85개의 기업이 참가해 31명을 채용했고 올해는 2백명 채용이 목표"라며 "취업 희망자들이 기업의 부스를 둘러보게 하는 일반적인 박람회에서 벗어나 구직자와 구인사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으로 면접을 주선하는 등 채용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 인력을 코트라가 직접 채용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00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바이어 찾기 사업'이 그것이다.

퇴직한 무역 전문인력을 뽑아 코트라에 제품 공급사문의하는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5천7백만 달러의 수출을 성사시키는 활약을 펼쳤다.

코트라는 최근 글로벌 취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 인력을 해외로 내보내기도 하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을 주선하기도 한다. 퇴직 전문인력 재취업 사업도 그 일환이다.

청년들을 위한 사업도 있다. 2009년에 첫 도입한 '지사화 인턴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30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코트라의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에 청년들을 인턴으로 파견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은 현지에서 중소기업의 해외 주재원 역할을 한다. 현지에서 바이어를 발굴하고 직접 수주를 따내는 등 수출 기회를 넓히는 일을 한다. 말하자면 '1인 지사'가 되는 것이다.

해외로 청년인턴 파견 후 정규직 채용도

성과가 좋으면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으로 이어진다. 2009년 1백17명을 파견했는데 이 가운데 75퍼센트가량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김 차장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 인턴들이 현지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코트라가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있다"며 "올해는 1백명 내외의 '지사화 인턴'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트라의 글로벌 취업 지원 사업은 내·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코트라의 강점을 활용한 것이 성공의 원동력으로 꼽힌다. 코트라는 해외 조직망과 해외 사업 특성을 살린 양질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G 글·변형주 기자

발전소 세우며 지역청년들 기능교육

6~7년간 최고 기술자로 육성시킨 뒤 국내·해외사업 동반진출 계획

"'세계 최고의 발전소 모델'을 지향하는 삼척그린파워를 건설하면서 '발전소 건설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값진 성과를 얻어 냈습니다."

남호기 한국남부발전(이하 남부발전) 사장은 "공기업의 역할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있다는 신념으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부발전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저열량탄 발전소인 삼척그린파워 건설을 추진 중이다. 2015년 준공 예정으로, 이 건설사업에 투입될 3백여 명의 기능 전문인력(용접, 기계, 전기분야)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오지인 삼척에는 전문인력이 부족함은 물론 산업시설 미비에 따른 지역경제 부진으로 청년 일자리가 전무한 상황이었고, 직장을 잡지 못한 젊은이들의 상실감과 사회적 불만이 팽배했다고 한다.

남부발전은 삼척시와 협력해 '발전소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삼척시, 한국폴리텍3대학과 협력해 '삼척그린파워 기능학교'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남부발전은 교육훈련비·인력활용 지원을, 한국폴리텍3대학은 교수진·교육훈련 제공을, 삼척시는 지자체 내 교육시설 제공과 교육생 모집을 담당하기로 했다.

'삼척그린파워 기능학교' 운영 교육생 1백20명 선발

2009년 11월 기능인력 양성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10년 1월 삼척 지역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인력 공모를 실시했다. 교육은 삼척전자공고에서 그해 3월 시작됐고 2011년 2월까지 총 4차에 걸쳐 1백20명의 교육생을 선발했다. 교육과정은 기능인력이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자격 취득 시 건설현장에 전원 취업을 약속했다.

지역 청년들이 주간 생계활동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야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월 50만원의 보조비를 지급했다. 자격 취득자 격려금 지급, 교육우수자 교통비 지급 등 교육 활성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금까지 71명의 훈련생이 국가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지역 젊은이들에게 취업에 대한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줬다. 또 3D 업종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는 데에도 기여했다. 현장에



조감도

세계 최대 규모의 저열량탄 발전소가 될 삼척그린파워 조감도.

투입될 수 있는 전문 기능인력 양성과 취업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인력의 높은 호응도를 이끌어 냄으로써 3D 업종에 대한 젊은이들의 시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남부발전은 오는 5월 말 발전소 주 설비인 보일러 터빈 시공사가 최종 확정되면 삼척전자공고에서 시공사 합동 청년취업식을 가질 예정이다. 취업한 기능인력들에게 교육 시작부터 발전소 준공까지 6~7년간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도록 하고 최고 기술자로 육성시킨 뒤 국내 플랜트 산업 및 해외사업에도 동반 진출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남부발전 건설처 사업총괄팀 송흥복 차장은 "삼척그린파워 기능학교가 취업 전문교육 기관으로서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게 되어 실무자로서도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무엇보다 국가 자격증 취득을 통해 지역 젊은이들이 평생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 가장 큰 결실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2001년 창립됐고, 2006년 국내 화력발전회사 중 최초로 매출 3조원을 돌파했으며 2010년에는 발전회사 최초로 매출 5조원을 넘겼다. 하동화력본부, 영남화력발전소, 남제주화력발전소 등 전국 8개 발전소, 2개 건설소를 운영 중이다. 또 풍력발전 선도기업으로서 풍력사업을 친환경 수익모델로 개발하고 있다. G

글·서일호 기자

임직원 역량 높여 조직침체 고비 넘다

연봉등급 최대 30퍼센트 차이나게… 업무 성취의욕 향상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년 전 정부경영평가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당시 임금은 63개 준정부기관 중 61위였고, 도서지역 근무 등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신규직원의 이직률이 25퍼센트에 달하는 침체한 조직이었다.

지금은 얘기가 다르다.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인재개발 최우수기관 선정,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우수기관 선정, 고용노동부 노사문화우수기관 인증 등 공단이 2010년 한 해 동안 정부기관과 단체로부터 받은 수상, 표창, 인증만 총 35건에 이른다.

수동적 업무 자세를 능동적 자세로 바꾸는 등 외부의 저평가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공단 임직원들의 노력이 가져다준 결과였다. 하지만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위해서는 특단의 처방이 필요했다.

공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전 직원 성과연봉제를 실시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성과와 상관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연봉이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권고한 '간부직 우선적용'이라는 기준을 넘어서 '전 직원 대상 성과연봉제'를 실시한 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이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공기관 최초로 전 직원 성과연봉제를 실시한 국립공원관리공단. 노사가 끊임없이 접촉해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다.

노동조합의 반대가 심했던 것은 물론이다. 전국 30개 사무소와 50여 개 분소로 임직원들이 전국 각지에 떨어져 있다 보니 의견 공유도 쉽지 않았다. 개혁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었다. 엄홍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전 직원 성과연봉제 실시에는 노사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노조 설득에 앞장섰다.

엄 이사장은 "공단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노사가 함께 나누고 그 타개 방법을 함께 고민했다"면서 "저명인사 화상 특강, 성과연봉제에 대한 노사 공동설명회, 도시락 미팅 등으로 2년간 2백50여 회에 걸쳐 노사가 접촉,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 결과 작년 노동조합대의원 총회에서 82퍼센트 찬성으로 '전 직원 성과연봉제'에 대한 합의를 보게 됐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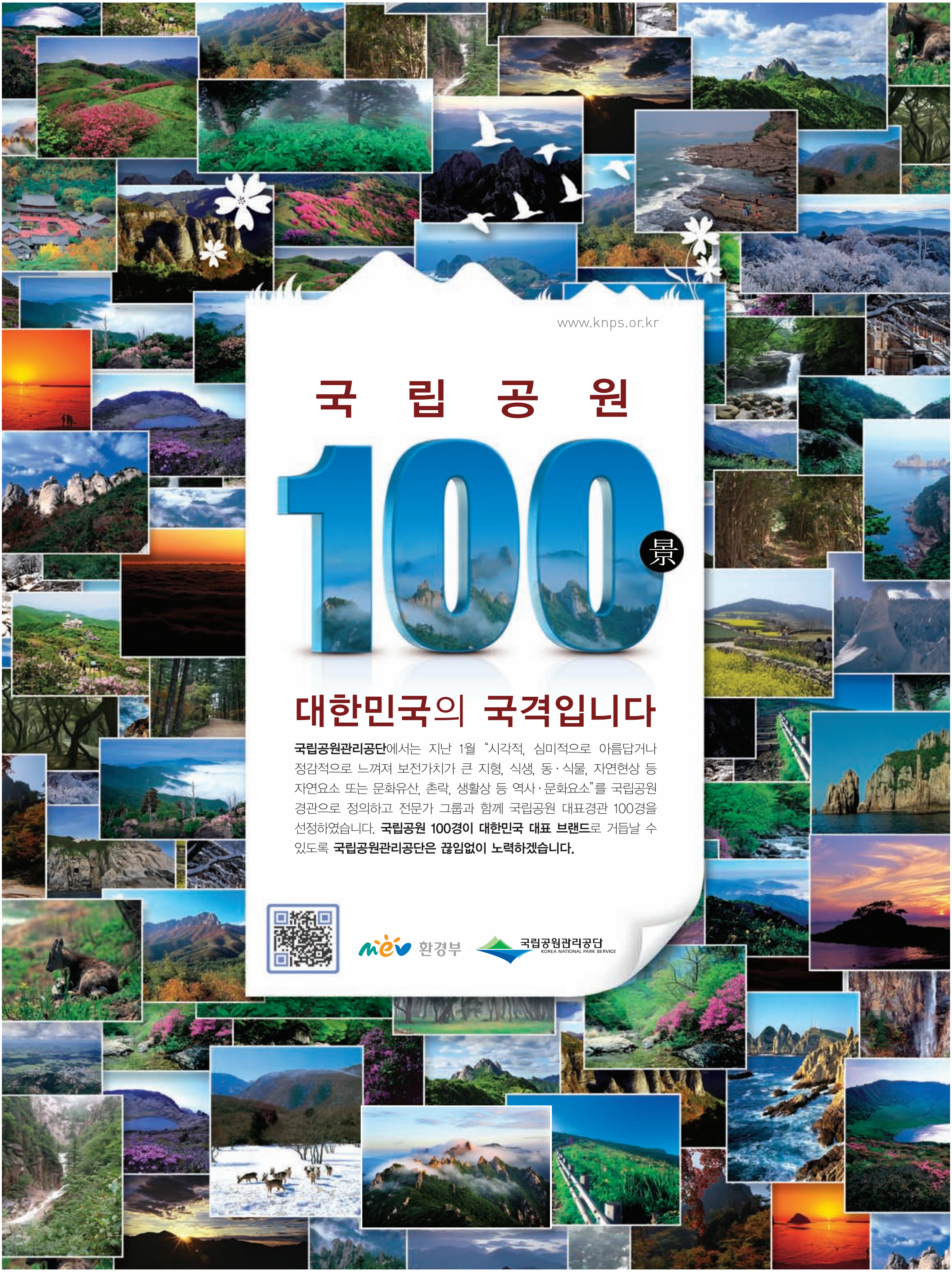
성과연봉제는 제대로 된 성과 목표와 투명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 공단은 업무 성격을 고려한 '개인별 목표관리제'와 평가의 객관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외부 평가 비율을 높인 '공단형 평가 기준'을 도입했다.

노동조합과 합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했다. 책정 기준은 개인평가와 부서 평가를 통해 5등급으로 분류, 연봉 차등 폭을 6~30퍼센트로 대폭 확대했다. 1등급과 5등급의 차이가 무려 30퍼센트나 나는 파격적인 책정이었다.

공단은 전 직원 성과연봉제 실시 후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조직으로 거듭났다고 자평하고 있다. 조직원 동기 유발과 업무 성취의욕 향상은 물론 이를 통해 조직원의 역량도 강화됐다. 이 결과 작년 6월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 발표 후 눈치만 보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엄 이사장은 "앞으로 성과연봉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보다 창의적인 조직으로 변화할 것"이라면서 "변화는 곧 공원자원 보존과 대(對)국민 서비스의 질 업그레이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G

글·박근희 기자


www.knps.or.kr
국 립 공 원
100景
대한민국의 국격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지난 1월 "시각적, 심미적으로 아름답거나 정감적으로 느껴져 보전가치가 큰 지형, 식생, 동·식물, 자연현상 등 자연요소 또는 문화유산, 촌락, 생활상 등 역사·문화요소"를 국립공원 경관으로 정의하고 전문가 그룹과 함께 국립공원 대표경관 100경을 선정하였습니다. 국립공원 100경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자동차 정보 '원 클릭' 서비스

16개 시도 분산 전산망 통합… 대국민 포털시스템 구축

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 내의 공단 조직도를 보면 여느 기관과 다른 점이 눈에 띈다. 대개 조직도 소개에는 경영진을 중심으로 주요부서가 나열되는 피라미드식 구도를 그리는데 교통안전공단은 '고객'이 최상단 중심부에 있고 직원, 경영진 순으로 돼 있다. '고객 우선'이라는 공단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은 1997년 자동차 검사 이원화 이후 어려움을 겪어오다 2008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해 변화와 혁신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고객만족도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일러스트·박용인

2009년 성과관리제인 인사드래프트제를 적극 추진한 데 이어 2010년 7월에는 16개 시도로 분산운영 중이던 자동차관리 전산망을 하나로 통합, 대(對)국민 포털시스템을 구축했다.

효율적인 정보연계 등 고객 친화 서비스

교통안전공단의 포털시스템은 자동차 검사 및 압류, 보험 등에 대한 조회·발급 업무를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처리가 실시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유관기관, 금융기간 전산망과 연계해 정부, 공공기관, 자동차 관련단체에 자동차 통계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공채, 지방세 등의 무방문 온라인 납부 처리는 물론 자동차 인터넷등록도 컴퓨터 마우스 '클릭' 하나로 가능하도록 했다.

포털시스템 구축과 활용은 곧 고객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공단은 2010년 자동차 검사부문 고객만족도에서 전년대비 1.6퍼센트 포인트 향상된 89.4점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뤘다. 2011년 1월부터는 구조변경 승인서류의 규격화와 표준화를 통해 구조변경승인 대행자에게 의존했던 업무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포털시스템을 선보이기에 앞서 공단은 효율적인 정보연계,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에 힘썼다. 시스템 사용자인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2010년 한 해에만 3백70회의 현장교육을 했고, 휴일과 야간에 모의시험을 시행했다.

통합관리 프로세스 개발과 법령 개선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지방세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16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해 타 시도 지방세 신고·수납의 표준절차를 마련했다. 공채매입을 공단이 대행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정상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인터넷 민원서비스인 포털시스템을 통해 2010년 12월 한 달간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률은 5.1퍼센트, 지역 무관 등록서비스 이용률은 15.9퍼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국민부담은 약 1백20억원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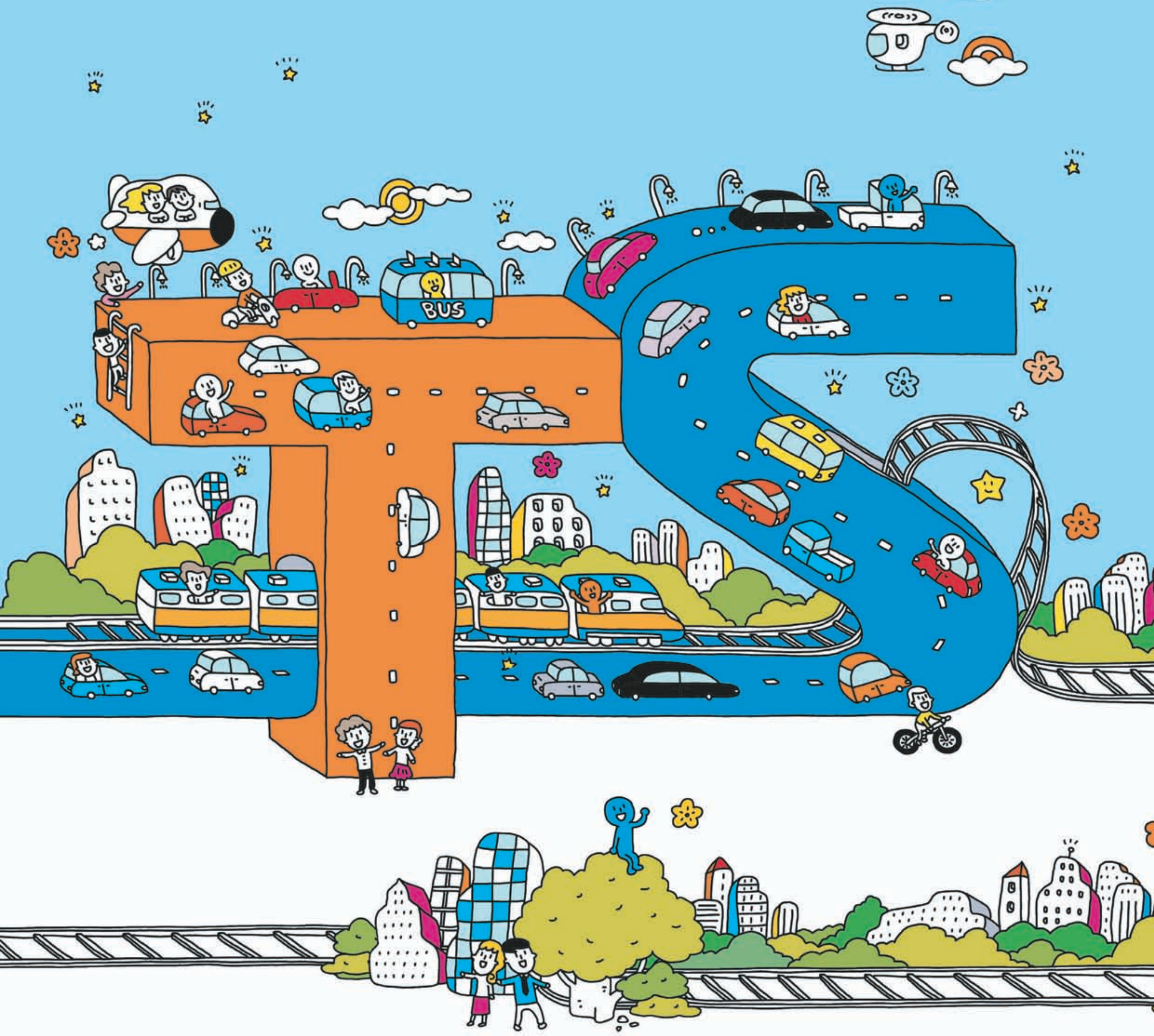
공단은 향후 5년 내 시스템 이용률을 30퍼센트 수준으로 향상시키면 약 3천1백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연 4천6백81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고객들의 연중 상시 이용만족도를 조사하는 '해피콜 서비스'를 통한 올해 KMAC의 콜센터 고객만족지수(KSQI) 결과에서도 93점을 기록,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콜센터 서비스 만족도를 보이기도 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올해는 자동차 토털 라이프 사이클 관리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보다 편리하고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G

글·박근희 기자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ts2020.kr


BUS

연수·파견 형태 '철밥통 인력' 여전히 많다

정책적 필요성 따른 정부의 개입도 경영 효율성 방해요인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개선해야 할 점과 향후 과제 역시 산적해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 편익의 증대'라는 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책 추진 주체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최대한 벗어나야 하고 노사관계 선진화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규제개혁, 능동적 개방과 함께 3대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공공기관 선진화였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공기업 민영화와 동일시됐다. 그러나 제1차 민영화(1968년)에서 제2차(1980년), 제3차(1987년), 제4차(1993년)에 이르기까지 민영화는 범위나 방법, 성과가 제한적이었으며, 주로 정부보유 주식의 일부 매각을 통한 부분적 매각에 그쳤다.

이명박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은 공공부문 개혁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구별된다. 기획재정부가 2008년 8월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6차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수립돼 공공기관의 구조개혁, 소프트웨어 개혁과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이 추진되었다.

현재까지 정책의 추진성과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부가 발표한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따르면, 통폐합은 당초 대상인 36개 공공기관을 16개 기관으로 하는 통합과 5개 기관의 폐지로 1백퍼센트 달성되었다. 특히 역대 정권의 해묵은 숙제였던 대한주택



조선DB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연됐던 산업은행 등 정부 소유 금융기관의 민영화도 재추진해야 한다.

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로 통합한 것은 주요 성과로 꼽힌다.

경영효율화를 보면, 총 1백29개 대상 공공기관의 정원조정이 완료되어 2008년 대비 2만5천명이 감축되었고, 2012년까지 초과인원을 모두 해소할 것이라고 한다.

보수체계합리화 부문에서는 과도한 임직원 임금체계와 복리후생비를 조정하고, 비핵심사업 폐지나 여행경비기준 조정과 같은 경비감축조처가 단행되는 등 방만한 경영에 대한 수술이 진행되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설립 절차 더욱 엄격해야

이런 가시적인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고, 향후 개혁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정부가 경제운용의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 선진화의 정책기조를 훼손하는 일이다.

정부는 물가관리, 일자리 창출이나 친서민정책에 치중하면서, '작은정부, 큰시장'으로 전환하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국민편익을 증대'한다는 초기의 정책기조에서 후퇴 내지 역행하는 조치를 종종 취해 왔다.

전기·가스·건강보험·수도 부문은 국민생활에 직결되고 요금인상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2008년의 금융위기 때문에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과 산업은행 개혁이 보류됐다.

공공기관에 인원감축을 요구하면서도 공공근로직이나 청년인턴의 채용,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려 한 점도 정책시행의 혼선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수의 축소가 진행되면서도, 추가로 공공기관이 설립되거나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그렇다.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명분으로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된 바 있다. 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설립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타당성 검토와 선별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경영효율화가 추진되는 중에도 부실 경영의 사례는 끊임없이 나


조선DB

LH공사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 1천억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해 과다지출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진은 LH공사의 미분양 아파트 청약 현장.

타나고 있다. 재정지출의 확대와 대형 국책사업으로 공기업의 부채가 크게 늘었다. 특히 1백17조원이라는 LH공사의 막대한 부채는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와중에 LH공사는 지난해 1천억원이 넘는 성과급과 연수비용을 지출하는 등 공공기관의 과다 경비지출 행태는 여전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인원감축의 경우 정원조정이 완수되었다지만 유휴인력은 각종 연수나 파견근무의 형태로 여전히 남아 있다. 이들에 대해 인건비 지출, 심지어 성과급 지급도 계속되는 등 경영효율 개선노력에 부담이 되고 있다. 유휴인력의 정리문제는 경영개선의 발목을 잡고 공공기관 개혁성과를 희석시키는 요인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불합리한 노사관행도 구조개혁 발목잡아

최근 법원이 공항공사의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한 데서 드러나듯이, 인원감축이 목표달성 요구에 밀려 충분한 사전합의나 법적 검토 없이 성급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뤘던 정부 소유 금융기관의 민영화도 재추진해야 할 시점에 와 있고, 공공기관 선진화 대상에 지방공기업을 포함시킬 필요도 있다. 지방공기업의 규모는 이미 73조원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성과 부실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비교적 주목을 덜 받고 있다.

공공기관 선진화가 외견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큰 데는 적어도 두 가지 요인이 있다. 먼저 개혁추진 주체와 대상의 지배구조 문제를 들 수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실질적 소유권자라는 사실은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근원적 취약점이다. 기관장은 임면과 업무수행에 있어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책임경영의 유인을 갖기 어렵다.

공익성이라는 목표나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종종 개입하여 효율성을 추구하기 어렵게 한다. 공공서비스의 독점성, 지속성, 무경합성은 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 현재 공공기관 선진화가 겪고 있는 문제도 대부분 이런 지배구조상의 약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정책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진주체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정부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최대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노조활동의 영향을 얼마나 배제할 수 있는가도 개혁 성공의 주요 관건이다. 이 문제는 공공기관 지배구조와 밀접히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은 여전히 민간부문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평균보수와 복리후생의 혜택, 고용보호를 유지하고 있다. 과다한 성과급, 경조사비, 휴가비, 교육훈련비 지원과 같은 비합리적 인건비 지출과 연금채무 부담을 통제하는 일은 합리적인 노사협약제도를 확립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통폐합 이전의 노조들이 혼재돼 있고, 불합리한 노사관행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구조개혁과 경영효율개선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건전한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구축은 공공기관선진화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필요불가결한 인프라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G



장대홍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

암 투병 중 산문집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펴낸 이해인 수녀

“아프면 아픈 대로 나눌 것이 많아요”

이해인 수녀의 시에는 종교를 뛰어넘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힘이 있다. 암 투병 중으로 알려져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던 그가 최근 산문집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를 펴냈다. 책 제목처럼 이 수녀는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밝은 모습을 잃지 않고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조선DB

이해인 수녀는 “제가 암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암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잖아요. 역설적 고백이지만 암 투병이 제게는 축복이에요”라고 말했다.



이해인 수녀의 산문집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샘터 펴냄)가 4월 초 출간된 직후 베스트셀러 상위 목록에 올랐다. 1970년대 말 이후로 이 수녀가 펴낸 시집과 산문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독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내적 구도(求道)의 치열한 성찰을 통해 걸어올린 그의 언어들은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에 꽃씨로 전해져 사랑과 위로의 꽃으로 피어났다. 2008년 여름 예기치 않게 암이 발병해 많은 이를 안타깝게 했으나 ‘명랑 투병’이라는 조어까지 만들 정도로 밝은 모습을 보이며 치유와 희망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명랑 투병’으로 치유와 희망의 메신저 역할

이번 산문집은 자신이 겪은 심신의 아픔을 진솔하게 풀어놓으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희망은 살아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일상의 나날을 담은 칼럼들, 수도자의 길을 함께 걷는 친구에게 주는 단상, 수도원 생활을 담은 일기, 기도와 묵상, 세상을 떠나간 사람에 대한 추모의 글 등을 묶었다.

부산 성 베네딕도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이 수녀가 서울성모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최근 상경했을 때, 서울역 인근에 있는 수도원 분원에서 만났다. 이 수녀는 “수도자로서 대중 앞에 자꾸 나선다는 시선이 부담스럽지만,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일이라면 비록 내가 힘들어도 즐겁게 감당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수녀의 음성은 특유의 쾌조를 띠었고 얼굴은 여전히 고운 태가 남아 있지만, 병색을 감추지는 못했다. 직장암 투병을 하고 있는 이 수녀의 치료 경과는 좋지만 아직 완치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주변의 전언이었다. 이 수녀는 3년 전 암에 걸린 후 ‘명랑 투병’을 하

게 된 사연을 담담하게 소개했다.

"처음에 암센터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먼저 하겠느냐, 방사선을 하겠느냐, 묻더군요. 속으로 가슴이 울렁거렸지만 즉시 표정을 밝게 하고 답했지요. 60여 년 살았으니까 됐어요. 선생님 좋은 대로 하셔요.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을게요. 속으로 두려움이 있었으나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이후 이 수녀를 수술한 의사가 주변에 '수녀 시인이 너무 화통하더라, 명랑하더라'고 전했다고 한다. 그렇게 소문이 나다 보니 이 수녀도 그에 맞게 '명랑 투병'하기로 목표를 정했다고 했다.

"제가 암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암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잖아요. 아프면 아픈 대로 나눌 것이 많습니다. 역설적 고백이지만, 암 투병이 제게는 축복이에요."

어머니에 대한 추모의 정 애틋하게 담아

이 수녀가 만든 조어인 '명랑 투병'은 그의 본명과도 통한다. 1945년 강원 양구에서 태어난 이 수녀의 본명은 명숙(明淑). 여섯 살 때 아버지가 납북돼 생사를 모른 상태에서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까지 담당했다.

이른바 결손 가정이지만 신앙과 어머니 덕분에 늘 마음 부자로 살았다. 지난 2006년 산문집 〈풀꽃 단상〉에서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표현했던 그는 이번 산문집에서도 추모의 정을 애틋하게 담았다.

그는 여고를 졸업한 직후인 19세에 올리베타노의 성 베네딕토 수도회에 입회해 세례명 '클라우디아'를 얻어 수녀가 됐다. 이후 반세기 가까이 수도자 생활을 해온 이 수녀도 "스스로에게 뾰족하고 날카로운 성품이 있는데,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은, 이 수녀와는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인물들과도 교분을 나눌 수 있게 하는 힘이 된 듯하다.

이 수녀는 록그룹 '부활'의 리더 김태원씨가 스캔들로 실의에 빠져 있을 때 만나서 우정을 나눠왔다. 김씨는 그런 인연으로 이번 책의 추천사를 썼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들조차 아름다울 수 있음을 이 책을 통해 다시 배웠다.'(김태원)

이번 책에는 살인범으로 무기형을 받고 복역 중인 신창원씨와 편지와 면회 등으로 나눈 우정에 대한 기록도 있다. 이 수녀는 문학으로서뿐만 아니라 이른바 '편지 사목'을 통해 공동체와 소통해 왔다. 그가 꾸려가고 있는 '해인글방'의 창고에는 그가 사람들로부터 받은 몇십만 통의 편지가 사람들의 직업 장르에 따라 색깔별로 분류돼 있다.

"전국 각지에서 늘 편지가 오는데, 한 줄이라도 답을 해주려고 애써요. 글방 창고에 가면 편지에 담긴 글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말을 건네는 듯하지요."

새로운 맛

물 한 모금 마시기
힘들어하는 나에게
어느날
예쁜 영양사가 웃으며 말했다

물도
음식이라 생각하고
천천히 맛있게 씹어서 드세요

그 이후로 나는
바람도 햇빛도 공기도
천천히 맛있게 씹어 먹는 연습을 하네
고맙다고 고맙다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삼키기 어려운 삶의 맛도
씹을수록 새로운 것임을
다시 알겠네

–이해인

함께 투병한 김수환 추기경의 인간적 모습도 전해

그가 박완서 작가, 법정 스님과 동료 문인으로서 두터운 우정을 나눴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책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옆 병실에 함께 입원했었던 김수환 추기경의 인간적인 모습을 전하는 에피소드도 담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어느 날 추기경의 병실에서 이 수녀는 함께 깨죽을 먹은 후 기도를 부탁했다. 그때 추기경은 혀도 잘 돌아가지 않는 상태로 길게 말을 이어갔다.

이 수녀가 "힘드신데 좀 짧게 하시죠"라고 하니, 추기경은 "상대가 문인이라 나름 신경 좀 써서 하느라 그랬지!"라며 웃었다. 기도의 요지는 "이 수녀가 시의 향기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도록 세상에 오래 남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김 추기경이 긴 기도를 통해 소망한 내용이 꼭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G

글·장재선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영화 〈수상한 고객들〉로 흥행몰이 배우 류승범

“가족 간의 소통… 이 작품의 매력이죠”

배우 류승범(31)이 영화 〈수상한 고객들〉에서 ‘보험왕’으로 돌아왔다. 돈을 최고로 알았지만 삶의 끝에 선 고객들을 통해 진정한 가족애를 깨닫는 보험왕 연기로 가정의 달 5월에 진한 감동을 전한다. 개봉 열흘만에 관객수 70만명을 돌파했다. 영화계의 블루칩 류승범을 만났다.


스포츠조선

류승범은 “영화 속 인물들이 가난이나 특수한 가정환경 때문에 자살을 고민하지만 결국 가족 때문에 삶을 선택하는 과정이 와닿았다. 저도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왔기에 영화를 통해 그런 분들을 위로해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영화 〈수상한 고객들〉은 류승범, 성동일, 박철민 등 대표 코믹 배우들이 대거 등장해 언뜻 보면 코미디로 보인다. 그러나 실은 보험왕 배병우(류승범)가 자살 시도 경력이 있는 수상한 고객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촉촉이 눈시울이 젖는 휴먼드라마다.

30대 초반 또래 배우 중 가장 좋은 흥행 타율을 자랑하는 류승범에게 〈수상한 고객들〉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의 영화다. 그동안 유독 버디 무비에서 강세를 보였던 류승범이 확고히 단독 주연으로 나선 작품이기 때문이다.

자살이 주요 소재로 등장하기 때문에 스토리가 자칫 우울해질 수도 있는 위험요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상한 고객들〉을 택한 이유는 명쾌했다.

“시나리오를 접했을 당시 자살이 화두였어요. 제 주위에도 자살한 분이 있었고 매스컴에서도 연일 기사가 나왔어요. 극단적 선택은 안 했지만 저 또한 살면서 매우 비관적인 상황에 빠진 적이 있어요. 영화의 등장인물들이 가난이나 특수한 가정환경 때문에 자살을 고민하는데 결국 가족을 중심으로 소통하고 가족 때문에 삶을 택하는 과정이 와닿았어요. 저도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왔기에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그런 분들과 소통하고 웃고 울면서 위로를 하고 싶었어요.”

또래 배우 중 가장 좋은 흥행 타율

극중 배병우는 자살을 꿈꾸는 전 보험회사 부장(박철민), 4명의 아이를 혼자서 책임진 주부(정선경), 틱 장애를 지닌 채 노숙하는 청년(임주환), 가수가 꿈이지만 아버지의 빚 때문에 거리로 내몰린 소녀가장(윤하) 등 다양한 캐릭터를 1대 다수로 상대한다. 힘들 법도 했으련만 류승범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혼자서 여러 배우를 상대하느라 특별히 힘들지는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의 해석을 했죠. 각자 처한 환경 때문에 자살의 위험에 놓인 다양한 사람들, 즉 각 상황의 배우들과 호흡하면서 그들

"배우는 어떤 캐릭터이든 결국 자기 자신을 발가벗게 된다. 새로운 캐릭터를 개척하는 길이 외롭다 해도 대중이 원한다면 가야 한다. 배우는 죽는 날까지도 과정에 있다. 배우로서 한 시대의 존재로 남는 것처럼 황홀한 일은 없는 것 같다."



의 감정을 따라다니고 자연스럽게 물결을 탔어요. 상대 배우들에게 내던져지고 상대 배우들의 감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니 연기가 편해지더군요."

연기 경력 10년차에 누구보다도 필모그래피가 꽉 찬 터라 우쭐댈 법도 한데 류승범은 30대의 나이가 되니 오히려 혼란스럽다며 남자 배우가 진정성을 가지는 40대를 멋지게 받아들일 꿈을 꾼다고 한다.

"제 성격이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비뚤어진 부분이 있어요. 제 인생에서 이런 비뚤어진 태도에 기름칠을 하고 갈고 닦아야 하는지 아니면 성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요. 서른이라는 나이는 어정쩡해요. 미래도 준비하고 과거도 돌아봐야 하죠. 남자 배우가 진정성을 가지는 나이는 40대예요. 얼굴에서 삶에서 진짜 남자의 향기가 나는 나이죠. 40대에는 진정 멋진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류승범은 인생에서 좋은 영향을 주는 동반자들로 배우 최민식과 황정민, 류승완 감독, 연인인 공효진 등을 꼽았다.

"배우의 진정성 갖는 40대가 기다려져"

"배우로서 특별한 롤모델은 없지만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들은 많아요. 특히 최민식 선배와 황정민 형을 좋아합니다. 최민식 선배는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너무 즐겁고 그분에게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알고 지낸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늘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봐주는 분이에요. 황정민 형도 제 인생에 좋은 영향을 주는 동반자이고 제 친형도 그렇고요. 공효진씨는 배우로서나 신앙인으로서 존경스럽습니다."

연기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연기파 배우들이 가장 순발력 넘치는 배우로 꼽는 존재가 류승범이다. 황정민은 연기는 철저히 훈련에서 나온다는 자신의 연기관을 흔든 배우로 그를 꼽았고, 박용우 또한 정신이 바짝 들 정도로 연기를 하는 배우로 류승범을 들었다.

"형들이 본 모습도 제 일부겠죠. '사생결단' 때 정민이 형 시나리오는 화장실에서 바로 써도 될 만큼 휴지가 돼 있었어요. 그만큼 열심히 읽고 분석했다는 얘기죠. 정말 지독하게 훈련해요. 저와는 달라요. 저도 책을 분석하고 연구도 하지만 본능처럼 움직이고 야생적으로 상황에 나를 내던지는 편이에요."

류승범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2000)로 데뷔해 반항아의 표상으로 화려하게 떠올랐다. 이후 〈사생결단〉(2006), 〈부당거래〉(2010) 등 대표작에서 선과는 거리가 먼 나쁜 남자 캐릭터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그는 외유내강형 캐릭터의 도전에 대해서도 욕심을 갖고 있었다.

"배우라는 직업이 재미있는 게 어떤 캐릭터더라도 결국 자기 자신은 발가벗게 돼요. 특히 외유내강형의 캐릭터가 그런 편이죠. 지금도 지르지 않는 호흡 속에 감정이 녹아나는 작품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부 평가에 의해 위축될 때도 있지만 새로운 캐릭터를 개척하는 길이 외롭다 해도 대중이 원한다면 가야 하겠죠."

인터뷰 말미에 류승범은 로버트 드니로가 아카데미 영화제 시상식에서 했다는 얘기를 들려줬다. '영화는 관객이 만드는 것이고 스태프들이 만드는 것이다. 배우는 후대가 만드는 것이다'는 얘기가 인상이 깊었다는 것.

"배우는 죽는 날까지도 과정에 있어요. 죽어서도 완성되지 못하죠. 배우로 한 시대를 살면서 그 존재가 남는 것처럼 황홀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필름으로 남는 게 아니라 무형의 존재로 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G

글 · 모신정 (한국아이닷컴 기자)

‘두 팔 없는 화가’ 석창우 화백의 하루 밀착동행

“긍정은 나의 힘”… 이젠 가야금 연주 도전

하얀 화선지 위에 순식간에 김연아의 더블 악셀이 그려졌다. 믿을 수 없이 아름다운 광경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지난 2월 ‘두 팔 없는 화가’ 석창우 화백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실사단 앞에서 선보인 퍼포먼스의 힘이었다. 세계인을 감동시킨 석 화백은 개인전 29회, 그룹전 2백10여 회 등 작품 활동이 왕성하다. 따뜻한 봄날, 석 화백과 하루를 보내며 그의 일상을 취재했다.



석창우 화백은 왕성한 작품활동 외에 예능, 다큐멘터리, 교양 등 방송출연도 활발하다. 사진은 석 화백이 라디오 국악방송의 〈일요초대석〉에 출연한 모습.

06:27 바쁜 하루의 시작

이른 아침, 석 화백은 두 팔을 추스르고 하루를 시작하려 한다. 왼팔이 잘 펴지지 않는다. 그의 의수가 고장 났기 때문이다. 7년 가까이 사용한 의수를 새것으로 다시 교체할 때가 됐다.

오랜 시간 함께한 의수에 정이 들었지만 결국 병원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하고야 만다. 석 화백의 왼쪽 귀에는 언제나 핸즈프리가 꽂혀 있다. 최근 섭외요청이 잦기 때문에 전화통화를 위한 필수품이다. 의수, 핸즈프리와 늘 함께 지내게 된 사연은 두 팔을 잃은 그날부터 시작됐다.

1984년 10월 24일, 한 기업의 전기 책임자였던 석 화백은 기계 점검 중 2만2천9백볼트의 전기에 감전돼 두 팔을 잃었다. 그러나 그는 “그 정도의 전압에 감전되면 보통 팔다리를 모두 잃는데 오히려 다리가 남아 있다는 것에 다행이다 싶었죠”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08:52 작품을 돌아보는 시간

석 화백은 얼마 전 아들을 유학보내기 위해 자신의 작업실을 포기했다. 이 때문에 요즘 오전 시간에는 집으로 옮겨온 작품을 정리한다. 그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1988년, 다섯 살 된 아들에게 새의 그림을 그려준 것이 계기였다.

그는 “두 팔이 없어 안아주지도, 업어주지도 못했던 아들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데 그 부탁을 꼭 들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처형이 그의 미적 재능을 알아봤다. 석 화백은 처형의 강력한 권유로 아내의 식당개업도 미룬 채 미술공부를 시작했다. 이후 전문교육을 받기 위해 발품을 팔았지만 그의 장애를 받아주는 교육자는 없었다. 그러다가 여태명 교수(원광대)를 만나 본격적인 미술 교육을 받았고, 지금은 ‘서예크로키’라는 새로운 기법을 탄생시킨 주인공이 됐다.

그는 “남들이 다 하는 분야에 따라가고 싶지 않았고 더욱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주목받고 싶지 않았다”며 서예크로키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무대 바닥을 가득 메우는 거대한 화선지 위에 한 손에는 붓을, 다른 손에는 붓통을 걸고 자신의 의수를 다 드러낸 석 화백. 모델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포착하여 석 화백도 검은 먹을 하얀 화선지 위에 춤을 추듯 움직이며 물들인다.

그는 “그림을 그릴 땐 소리도 들리지 않고 모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깊은 몰입에서 빠져나온 뒤 석 화백은 탈진하고 말았다.

11:40 아내의 도움으로 즐거운 점심시간

석 화백의 점심시간은 절대 외로운 법이 없다. 그는 “제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그날 저의 오른팔이 됩니다. 대신 밥 먹을 땐 까탈스럽게 굴면 안 돼요”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의 의수는 붓을 잡기 편리하도록 각도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혼자서는 밥을 먹을 수



작품 〈김연아의 악셀〉. 석 화백은 붉은 발도장을 낙관으로 쓰고 있다. 안중근 의사의 손바닥 낙관에서 얻은 아이디어라고 한다.

없다. 주로 그의 오른팔이 되어주는 사람은 아내 곽혜숙씨다. 그가 지금처럼 그림을 그리기까지 아내의 전적인 지원이 있었다.

석 화백은 "사고 후 눈을 떴을 때 부인이 비관하지 않고 편안한 얼굴로 자신을 위로했다"며 사고 당시 25세였던 아내의 의연함을 기억했다. 그리고 아내의 도움으로 사고 후 단 한 번도 좌절한 적이 없었다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했다.

석 화백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그림 그리기라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기 때문에 정말 기뻤다"며 "모든 활동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 얼마나 재밌었겠어요?"라며 오히려 되물었다. 그는 "전기 기술자였던 당시에는 먹고살기 위해 일했지만 이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어 더 행복하다"고 말했다.

15:02 가야금을 연주하는 시간

석창우 화백은 최근 또 다른 도전에 재미를 느끼고 있었다. 아내가 가야금을 배우는 길을 따라 나서서 그도 가야금 연주를 시작한 것. 농현까지 눌러주며 감칠맛 나는 아리랑을 연주해 보인 석 화백은 "각 지역의 아리랑을 모두 연주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지금은 갈고리에 테이프를 감고 현을 누르지만 골무를 대는 방안도 생각 중이다. 뜯고 눌러주고 풀어주며, 손을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가야금 연주는 그에게 벽이 아닌 매력 그 자체였다. 12개의 현을 뜯고 누르는 일이 힘들지 않으냐는 질문에, 그는 "좋아서 하는 일이고 오히려 어려운 동작들 때문에 더 재밌다"라고 답했다.

17:00 ON AIR

그가 가야금을 연주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일까. 이날 국악방송의 〈일요초대석〉 녹음이 예정돼 있었다. 진행자 정유희 DJ는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실사단 앞에서 펼쳤던 퍼포먼스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석 화백은 올림픽 실사단이 자리를 옮기는 이동경로에서 15분 동안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 더블 악셀을 그렸다. 실사단은 예정에 없던 일이지만 경이로운 퍼포먼스에 매료되어 주목했다. 그리고 그의 퍼포먼스에 감동받아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야기는 자연스레 석창우 화백의 지난날을 향해갔다. 사고 당시의 생생한 회고와 미술의 입문 계기, 아내의 헌신 등 감동적인 이야기가 뒤를 이었다.

18:59 멈추지 않는 도전, 희망의 하루

방송을 마친 후 저녁식사. 애주가인 석 화백은 막걸리와 매운 아귀찜을 주문했다. 그는 "과거는 참고사항일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자기가 지금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라고 조언했다.

두 팔을 모두 잃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좌절해 본 적이 없다는 그의 인생은 긍정의 힘이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림에 이어 가야금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는 석창우 화백의 다음 도전은 무엇일지 기대된다. G

글과 사진 · 조병휘 (서울대 체육교육과)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기자단은 참신한 시각으로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의 이슈, 정책 등을 취재하고 다양한 홍보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활동기간은 1년으로, 현재 6기 10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의 열정 넘치는 이야기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식블로그 도란도란문화놀이터(culturenori.tistory.com)에서 더 자세히 만날 수 있다.

"불편한 것은 못참아"… '맥가이버' 납시오!

경기도 오산시청 '맥가이버' 이재영씨와 대구 달성군청 '신지식인' 채해수씨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이 공동 주관한 '지방행정의 달인'에서 각각 '중장비·기계 기술개발의 달인', '정보통신설비 설계개발의 달인'으로 선정됐다. 이들의 달인 인증은 '최고가 되겠다'는 의지보다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꿈꾸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중장비·기계 기술개발의 달인
경기 오산시청 **이재영씨**

공직생활 22년간 특허 1건·실용신안 6건 보유



조선DB

아이디어를 얻으면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실천가' 이재영씨는 "불편함을 개선하려다 보니 달인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겨울에 내리는 눈을 제거하기 위해 주요 도로 곳곳에 설치했던 모래주머니. 단단한 플라스틱 통에 담긴 모래주머니는 오히려 차량 통행에 장애 요소로 지적되기도 했다.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질 않았다. 그런 모래주머니가 언젠가부터 달라졌다.

플라스틱 통은 재활용 타이어로 대체됐고 자리도 도로 주변이 아닌 축대벽 등 안전한 공간에 설치됐다. 이른바 2001년 '도로설치용 모래주머니 적치대'는 경기 오산시청 이재영(57)씨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했다. 하지만 '모래주머니'의 진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2006년 '도로설치용 모래주머니 적치대'의 결점을 보완한 '충격흡수 모래함'을 다시 개발해 냈다. 충격흡수 모래함은 겨울철 장시간 보관 시 모래가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염분이 섞인 모래를 사용한 것이다. "운전자가 운전 중 부주의로 모래함과 충돌할 경우 기존 모래함과 비교하면 충격이 덜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굳지 않는 모래'에 대한 아이디어는 건물 붕괴 및 균열과 같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됐던 바닷모래에서 얻었다. 그는 '충격흡수 모래함'으로 2007년에 특허를 받았다.

"업무를 보다 어떤 것에 불편함을 느끼면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고 그것이 곧 아이디어로 이어진다"고 말하는 그는 아이디어를 얻으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해 보는 수고도 잊지 않는다. 올해로 22년째 공직생활을 해 오고 있는 그는 이런 열정으로 현재까지 1건의 특허와 6건의 실용신안등록을 보유하고 있다.

그가 개발한 또 하나의 작품 '아스콘 소파보수용 덤프차량'은 작업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스콘 소파보수'란 일부 구간이 꺼졌거나 파손된 아스팔트 도로를 재포장하는 작업을 말한다. 기존의 덤프차량은 아스콘을 바닥에 뿌릴 때 양 조절을 할 수 없어 필요 이상의 아스콘이 뿌려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섭씨 1백도 이상의 뜨거운 아스콘을 사람이 직접 퍼 나르다 화상을 입는 일도 잦았다.

아스콘 소파보수용 덤프차량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덤프트럭 적재함 하단부에 투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평상시 아스팔트 보수장치로 활용하고, 겨울철에는 장비에 회전판을 부착해 제설용 모래살포 장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회전판을 달아 모래나 염화칼슘이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원리다.

아스콘 소파보수용 덤프차량은 2006년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경영행정 혁신발표대회'에서 우수 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오산시청의 맥가이버'로 통하는 이재영씨는 "공무원이라면 민원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불편하고 안전하지 못한 것들을 그냥 넘기지 않고 좀 더 편하고 안전한 방법들을 생각하다 보니 여기(달인 선정)까지 오게 된 것 같다"고 말한다. 자신이 '가진 재산은 오직 '기술'이라고 말하는 그는 "퇴임하는 그날까지 많은 후배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퇴임 후에는 저개발 국가로 가서 기술 기부 봉사를 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정보통신 설비설계·개발의 달인
대구 달성군청 **채해수씨**

인터넷 농업방송 시스템 개발로 농가소득 높여

"공무원으로서 제가 할 일을 했고,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처리했던 것뿐인데 '달인'이라는 말까지 들으니 어깨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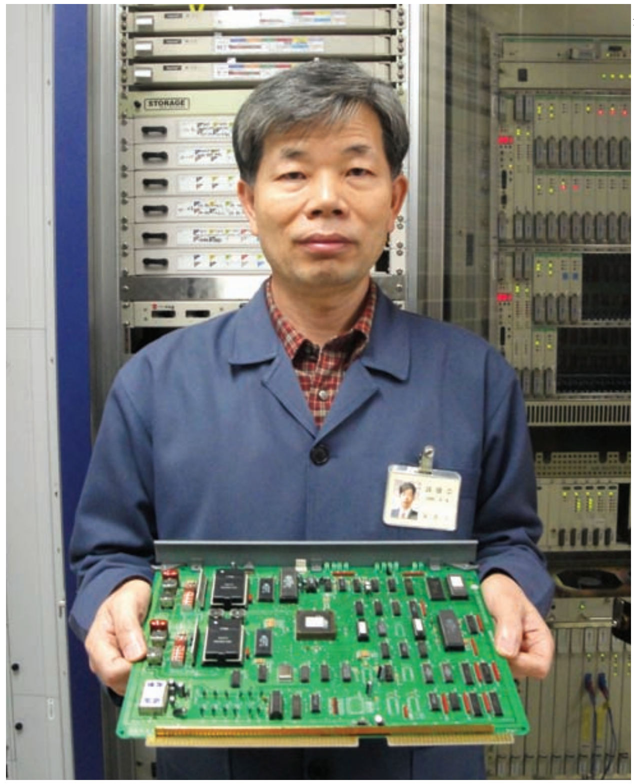
'정보통신 설비설계·개발 분야의 달인'으로 선정된 대구 달성군 통신담당 채해수(53)씨의 소감이다. 그는 이번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 시 지역주민들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1개의 정보통신 설비를 개발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그중 대표적인 성과는 인터넷 농업방송 시스템을 개발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그가 개발한 인터넷 농업방송 시스템은 농산물 파종에서부터 재배, 수확, 선별 등 생산과정을 촬영해 달성넷 홈페이지(www.dalseong.net)상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농업방송에 참가한 달성군 7개 작목반은 이를 통해 1백2억원에서 2백10억원으로 약 1백8억원의 매출 증대 성과를 거뒀다.

"인터넷 농업방송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현재는 방송 초기보다 10배에 가까운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인터넷 농업방송 시스템 개발로 2002년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신지식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후속작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산업방송 시스템도 개발해 냈다. 달성군에 중소기업체와 공장이 많다는 것에 착안, 공장의 제품생산 과정을 촬영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달성넷에 게재하고 있다. 그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수출 효과도 기대돼 관내 중소기업체들의 호응이 좋다"고 설명한다.

이밖에 '재난예방관리 시스템', '불법주차금지 LED 문자안내기 설



조선DB

채해수씨는 매년 한 번꼴로 수상했을 정도로 관련 분야에서 베테랑으로 통한다. 그는 현재 디지털마을 추진사업을 위해 힘쓰고 있다.

치와 관리', '노인들을 위한 무료 핫라인 전화 개설' 등으로 행정업무의 효율도 한층 높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특히 그가 개발한 재난예방관리 시스템은 재난예방관리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면서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시스템은 재난발생 예상지역 또는 재난관리 중점시설에 근무하는 안전담당자가 점검을 마친 직후 지자체에 설치된 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관리하는 방식이다. 점검누락이나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에 자동으로 음성통보를 하고 필요할 경우 공무원을 비상소집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미 통신설비 설계기술 분야 전문서적을 6권 펴냈을 정도로 저술활동도 활발히 하는 그는 "진정한 달인은 공무원 재직 동안 관련 분야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창의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라며 "달인 인증은 '멈추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매년 실적을 쌓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그는 도로변에 있는 유선방송 선로 등을 지하에 매설하는 방법과 유선방송 단자함 등을 하나의 단자함에 넣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G

글·박근희 기자

캐나다 밴쿠버의 호텔리어 정원지씨

“도전하는 행복을 찾아 서울을 떠났죠”

한 한국 여성이 돌연 자신이 하던 호텔 일을 그만두었다. 심한 비행기 멀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무작정 캐나다 밴쿠버로 향했다. 이력서 한 장 들고 서울을 떠난 그는 현재 밴쿠버 하얏트호텔 프런트 데스크 에이전시로 일하고 있다. G20세대답게 망설임과 두려움 따위는 던져버리고 거침없이 세계무대로 나아간 정원지씨의 도전담을 들어보았다.


조선DB

글로벌 호텔리어를 꿈꾸는 정원지씨는

현재 캐나다 밴쿠버 하얏트호텔 프런트 데스크 에이전시
우송대 관광디자인 학과 졸업
개인미디어 0508wj@gmail.com

정원지(28)씨를 처음 만난 것은 지난 2010년 1월 겨울 캐나다 밴쿠버의 한 번화가 카페에서였다. 그는 가방에서 손으로 다 잡을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명함을 꺼내 정리하고 있었다. 족히 1백 장이 넘을 것 같은 그 명함들은 그가 이력서를 제출한 밴쿠버 내 호텔 매니저들의 명함이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곤 고작 이력서 한 장. 바로 몇 주 전인 2009년 말 서울의 JW메리어트 호텔을 그만두고 ‘글로벌 호텔리어’의 꿈을 찾아 무작정 밴쿠버로 건너온 터였다.

그를 다시 만난 것은 지난 3월 서울에서였다. 휴가를 맞아 잠시 귀국한 그는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프런트 데스크 에이전시’ 명함을 갖고 있었다. 그것도 밴쿠버 중심가에 위치한 하얏트 호텔의 명함이었다. 밴쿠버의 호텔이란 호텔을 다 돌며 자신의 호텔리어에 대한 열정을 설명한 끝에 발탁된 것이었다.

면접관들 영어보다 마음가짐을 먼저 봐

“왜냐고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예요.” 서울의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밴쿠버로 향했던 그의 도전정신의 원천은 매우 간단했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 도전을 하며, 그 도전의 과정 또한 행복하다는 것이다. 자신이 행복한 것은 무언가 되었을 때, 즉 도달한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을 위해 느끼는 과정 속의 감정들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런데 많은 곳 중 하필 캐나다 밴쿠버를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전 어릴 적부터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성장하면서 다른 국적의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었죠. 그래서 선택한 직업이 호텔리어였어요. 한국에서도 일부러 외국인이 많이 찾는 호텔에서 일했고, 밴쿠버를 택한 것도 밴쿠버의 관광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어 재미있는 이야기와 다양한 행사가 있겠구나 싶어 가게 된 거예요.”

그가 밴쿠버로 건너가기 전 주변 지인들은 ‘미리 이력서를 내고 면접이 확정된 후 밴쿠버로 가라’고 충고했다고 한다.

"미리 서류를 밴쿠버로 보내 면접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현지 적응이 안된 상태에서 면접을 본다면 면접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밴쿠버에 가서 현지 적응을 하며 이력서를 넣어보기로 한 거죠. 직원 구한다는 공고가 나지 않았어도 밴쿠버의 모든 호텔을 다 찾아가 제가 만날 수 있는 가장 높은 사람에게 제 사정과 왜 일하고 싶은지를 이야기했죠."

일단 부닥치고 보자는 그의 '특이한' 도전정신은 밴쿠버 호텔계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이곳저곳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그에게 왔다. 그리고 밴쿠버 도착 3주 만에 호텔리어가 됐다.

"도전하세요… 한국인의 생각이 세계인의 생각"

그동안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여러 축제 등을 경험하며 밴쿠버를 택한 것에 대해 아주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그를 통해 한국과 캐나다의 취업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듣고 싶었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제게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어요. 면접장에 가서 알게 된 사실이 캐나다 역시 대학졸업자들의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것이었어요. 저 혼자만 동양인이라는 사실에 위축됐지만, 그들 역시 긴장하는 모습을 보고 위안과 자신감이 생겼죠. 면접을 치를 때는 나름 할 말을 다 했어요. 면접을 거치다 보니 면접관들은 영어 실력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손님을 대할 것인가를 더 많이 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캐나다든 한국이든 면접자는 떨리고, 면접관은 마음가짐과 경력을 보는 건 같아요."

캐나다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는 매우 신중하다고 한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 이전의 상관과 부하 직원에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채용자의 인품과 성실성을 확인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하는 동안 어디서나 항상 자신의 이미지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애쓴다고 했다. 항상 친절하게 모든 호텔 손님을 대했고, 손님들이 감사편지를 호텔로 보내와 상을 받기도 했다.

친절과 글로벌 에티켓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그에게 한국인이 고쳐야 할 매너에 대한 조언을 부탁했다.

"많은 세계인과 대화를 하며 깨닫는 것이 나라마다 느끼는 '시간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인의 시간은 너무 빠릅니다. 항상 어디서나 '빨리빨리'를 외치고, 음식이나 서비스가 늦어지면 직원들에게 권위적으로 말하는 걸 밴쿠버에서도 보곤 해요. 많은 돈을 지불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겠지만,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는 때론 세계인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해외에 나갈 땐 그 나라의 속도에 맞춰주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조선DB

주저 없이 꿈을 찾아 캐나다 밴쿠버로 떠나 '글로벌 호텔리어'의 소망을 이룬 정원지 씨. 자신이 근무하는 호텔에서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세계무대에 도전하고자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준비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물었다.

"다양한 곳에서 자신 있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밴쿠버에도 많은 젊은 한국인이 공부와 일을 하러 오세요. 하지만 대부분 한인 음식점이나 커피숍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언어의 문제도 있겠지만 많은 분이 한정된 부분에만 도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저희 호텔 같은 경우도 지난 1년 동안 한국인 이력서를 다섯 번밖에 받지 못했대요. 새로운 영역에 창조적으로 도전하세요. 한국인의 생각이 곧 세계인의 생각인 걸요."

그의 명확하면서도 단순한 도전, 행복 찾기에 대한 생각들이야말로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G20세대 정신이 아닐까. 망설이기보다는 도전하고, 좌절하기보단 창조하는 그야말로 세계에 한국의 '긍정의 문화'를 알리는 G20세대 리더였다. G



글 · 안시준 (연세대 경영학과 · JJUN0011@NATE.COM)



너무 낡아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보였던 예림 양의 집 전경.





공사 기술자 및 자원봉사자들이 짐을 옮기고, 구조를 살펴가며 개·보수

'온기훈훈 2차 캠페인' 집 고쳐 주기 양주 예림이네 집

"하루 만에 새 집으로 바뀌었어요"

"따뜻한 물도 나오고 비도 새지 않아 너무 행복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예림(15) 양의 집은 언제 지어졌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예림 양의 할아버지 여만섭(79)씨와 할머니 박옥녀(78)씨가 거주한 지 올해로 45년째 접어들었으니, 훨씬 이전인 일제시대 때 지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건물 외벽 여기저기 깊은 금이 가고, 그 틈새가 벌어져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예림 양의 집 안으로 들어서자, 주방겸 거실은 보일러도 작동되지 않아 냉기가 느껴졌다.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집 밖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불편해 보였다. 박 할머니는 "욕실도 없고 온수도 나오지 않아 예림이는 매년 겨울 찬물로 씻는다"고 했다.

15살 소녀 예림 양의 소박한 꿈은 따뜻한 물이 나오고 비가 새지 않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SK컴즈(네이트)는 지난 4월 27일, 예림 양의 소박한 꿈을 이뤄 주기 위해 '희망의 집 짓기' 자원봉사 활동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공감코리아와 포털사이트 네이트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나눔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마련한 자리였다.

예림 양의 집 개·보수 공사는 네이트의 '온기훈훈–사랑의 집 고쳐 주기' 캠페인을 통해 네티즌들이 예림 양을 응원하는 댓글 3천개 이상을 올리면서 이루어졌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와 SK컴즈가 각각 4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양측 23명의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했다. 해비타트 측 기술봉사자 8명도 지원했다. '온기훈훈 캠페인'은 싸이월드 사이좋은 세상과 공감코리아가 함께하는 기부문화 확산 사업으로 SNS를 통한 공감과 사랑의 댓글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캠페인이다.

생활할 수 없는 '폐가'에 가깝던 집

네티즌 누구나 댓글과 인터넷 후원으로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미성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결혼 이민여성 취업 지원 등 다양한 경로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예림 양의 집 개·보수 공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다. 비 때문에 이미 한 차례 주택 개·보수를 연기한 터였지만, 집 짓기 행사 당일 아침에도 비가 내렸다. 자원봉사자들은 '오늘 과연 공





작업을 하고 있다.



도배 작업과 외벽 시멘트칠 등이 더해지면서 예쁘고 깔끔하게 개·보수가 끝난 예림 양의 집.

사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섰지만, 작업 시작과 함께 비는 거짓말처럼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었다. 봉사자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평소 집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지붕과 벽 수리, 천장 합판공사, 페인트칠, 도배, 장판 작업에 나섰다.

"방안 곳곳에 빗물이 떨어져 누전 위험까지 있습니다. 천장까지 다 쳐져 있어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곰팡이 냄새도 심하지만 지붕을 보수해 컬러강판으로 시공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한국해비타트 손남선 대리가 낡은 천장을 뜯으며 말했다.

도배 작업이 한창이던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강연경 사무관과 최재련 주무관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배하는 것인데 검은 옷까지 하얗게 도배되면 어떠냐"며 "오늘 달인처럼 도배 열심히 배워서 노후대책 해야겠다"며 활짝 웃었다.

SK컴즈 이효정 과장도 "힘들어도 같이 열심히 일하니 힘든 줄 모르겠다"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탠다고 생각하니 기쁘고 행복하다"며 즐거워했다. 함께 페인트 작업을 하던 조은아 과장과 김미향 씨는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해 보니 쉽지 않지만 뭐든지 열심히 해 보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작업을 지켜보던 박 할머니는 "생전에 우리 집을 고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우리 집 고쳐 주려고 멀리서 여러분들이 오니까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집이 워낙 낡아 고치다가 고마운 사람들이 행여 다칠까봐 걱정도 된다"던 박 할머니는 "오늘 아침에 하늘이 새까맣고 비까지 많이 와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른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예림 양 집은 건강이 좋지 않은 박 할머니가 인근 공장에서 전선을 조립해 벌어들이는 20만원과 매월 38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생활비의 전부다. 그나마 할아버지, 할머니의 교통수당이 일부 지원되지만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 때문에 누수가 되어도 집을 수리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물론 중학교 2학년인 예림 양은 변변한 공부방 하나 없이 지내고 있었다.

온수 나오는 욕실과 공부방 선물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게 뭔 조화여. 다 쓰러져 가던 집이 말도 못하게 좋아졌구먼." 낡은 집의 놀라운 변신에 지나가던 동네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웃사촌인 김경숙(51)씨는 "어려운 사람 사정 어려운 사람이 안다고 내 집 고친 것보다 더 기쁘고 정말 고맙다"며 놀라운 듯 말을 잇지 못했다.

학교에서 돌아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던 예림 양은 문화부 이종수 홍보콘텐츠기획관이 준비한 상품권과 예쁜 목욕용품까지 선물로 받자 기쁨을 참지 못하고 환하게 웃었다.

뒷정리까지 다 마치고 차에 오른 시간은 오후 7시50분, 좋은 일을 위해 오래 비켜 줬던 거센 빗방울이 캄캄한 어둠을 뚫고 다시 쏟아져 내렸다. G

글과 사진·전흥진 (공감코리아 정책기자)

공감코리아와 싸이월드가 함께하는 '온기훈훈 3차 캠페인' 응원하기
http://cytogether.cyworld.com/campaign/event/201007_warm/201104_culture.asp

방사능과 먹을거리

몸속 방사성물질 80퍼센트 소변 배출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폭발 이후 방사성물질이 대기로 방출되고 공기 또는 비에 섞여 토양이나 해양을 오염시키면서 육·해·공이 초긴장 상태다. 방사성물질에 대한 2차오염과 관련해 인접국인 우리나라도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안은 주부들의 장보기 풍경을 바꿔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산 농산물 중에서 방사성물질 오염 가능성이 가장 큰 품목으로 시금치처럼 잎이 큰 채소류를 꼽는다. 잎과 줄기를 한꺼번에 먹는 시금치와 쑥갓은 잎이 넓은 까닭에 방사성물질이 잘, 그리고 많이 달라붙기 때문이다.

반면에 뿌리를 식용하는 채소인 무나 당근, 고구마 등은 땅속에 뿌리를 묻고 있어서 방사성물질에 덜 오염된다. 아무래도 방사성물질이 땅속으로 스며들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시금치나 당근처럼 식품별로 쌓이고 농축되는 방사성물질의 양이 다르다. 따라서 식품에 대한 방사성물질의 기준치도 다르다. 이번에 일본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정한 식품별 잠정 기준치를 살펴보면, 세슘의 경우 우유·유제품이 밀리그램(㎎)당 1백 베크렐(bq), 야채류와 곡류, 육류·계란은 5백 베크렐이다.

방사성 요오드의 경우 음료수는 밀리그램당 3백 베크렐, 야채는 2천 베크렐 등이다. 베크렐(Bq)은 방사성 물질이 방사능을 방출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단위다.

생물체의 세포조직이 방사선에 노출되면 얼마간 손상된다. 그런데 생물체는 방사선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스스로 복구하는 능력을


조선DB

지난 3월 29일 국내에서 요오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자 서울시 농수산식품안전팀 직원들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양이 복구능력을 넘어서면 각종 장애를 겪게 된다. 그 효과는 인공방사선이든 자연방사선이든 동일하다.

이런 능력을 넘지 않게 정한 것이 바로 생물학적 기준치이며,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이파리 야채를 1일 1백그램, 우유나 유제품은 1일 1리터를 1년간 지속적으로 먹어도 건강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설정한다.

그런데 시금치를 1년 내내 매일 50그램씩 섭취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나 방사성 요오드에 오염된 시금치를 말이다. 만약 기준치를 넘은 음식물을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

오염된 시금치를 먹었다고 해서 거기에 붙은 방사성물질의 모든 양이 몸에 축적되는 것은 아니다. 방사성물질이 체내에 들어와도 80퍼센트 이상은 소변을 통해 배출된다. 박철수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은 "이번에 방사성물질이 가장 많이 검출된 시금치를 기준으로 보면 매일 50그램씩 60년을 먹어야 흉부 X선 1회 촬영 시 받는 방사능 양과 같아 먹이사슬을 통한 인체 오염은 일어나기 힘들다"고 말한다.

다시마 과도하게 먹으면 갑상선에 안좋아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농산물은 대부분 물로 씻으면 씻겨 나가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배추 등 잎이 덩어리진 채소는 바깥쪽의 두꺼운 잎을 2~3장 제거하고 먹는 게 안전하다. 원전 인근에 위치해 방사성물질의 영향을 직접 받은 4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일본산 시금치 등은 이미 수입이 금지된 상태다.

또 방사능 방어를 위해 다시마나 미역을 많이 먹는데 일상적인 섭취량으로는 요오드 양이 매우 적고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 갑상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일본산 어류 또한 국내외에서 이미 외면을 받고 있다. 방사성물질인 세슘은 물에 녹는다. 만일 방사성물질 세슘이 녹아 있는 바닷물을 물고기들이 마신다면 아주 작은 양이라도 물고기 몸속에 흡수될 것이다.

세슘은 소량이라도 인체에 흡수되면 잘 배출되지 않고 백혈구나 조혈세포, 생식세포를 파괴할 수 있어서 이러한 물고기를 먹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에서 들여오는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본산 식품은 수산물이 대부분이다. 일본산 가운데 한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수산물은 명태다. 명태 중에서도 특히 냉장상태로 유통되는 수입 생태는 거의 대부분이 일본산



연합

전문가들은 일본산 농산물 중에서 방사성물질 오염 가능성이 가장 큰 품목으로 시금치처럼 잎이 큰 채소류를 꼽는다.

이다. 고등어는 생물과 냉동 모두 유통된다. 참치나 돔은 일식집에서 횟감용으로, 꽁치는 통조림이나 가공용, 업소용 등으로 주로 수입하는 어종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이거니와 일본과 가까운 국내 연근해 어류의 방사성물질 오염 여부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일본 동북해역에서 국내 바다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오징어, 고등어, 참다랑어가 집중 관찰 대상이다. 같은 지역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이라도 러시아가 잡으면 러시아산, 일본이 잡으면 일본산이 되므로 일본산 수산물만 검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본산 수산물만 검사하는 것으론 부족

가공식품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면 가급적 피해야 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방사성 낙진이 포장지에 묻는 경우보다는 원료 자체가 방사성물질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크다.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중에는 향신료, 조미료 등 첨가물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유럽의 방사선 피폭 원인의 54퍼센트는 세슘에 오염된 식품의 섭취 때문이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따라서 일본산 농산물·수산물·축산물에 대한 검역이 일시적인 감독 강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사성물질은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이 가능한 만큼 수년 후에도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발 방사능 공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만큼 정부는 철저한 관리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재료를 확보해 줘야 할 것이다. G

글·김형자 (과학칼럼니스트)

찰나와 찰칵!
민병헌 〈폭포〉 연작 사진전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를 담은 그의 최근작 〈Waterfall〉에서는 물살의 추상적인 형태의 조형성, 프린트가 만들어내는 물의 촉각성과 함께, 물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Untitled, from Waterfall series〉· Gelatin silver print · 2008년

이미지를 찾는 숨바꼭질이라고나 할까. 사진작가 민병헌(56)씨의 회색빛 사진들은 명쾌하게 보여주지 않는다. 프레임 속의 자연과 도시의 풍경들을 뜯어보고 이미지에 몰입해 보라고 속삭이는 듯한 사진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진의 본질은 '딱 부러진' 재현인데, 작가는 이런 본질을 뒤집어버린다. 대기에 녹아버릴 듯한 나무, 설원, 전깃줄의 윤곽 등 그의 사진 속 이미지들을 더듬는 관객의 시선은 점점 예민해진다. 전통 그림의 농담을 완상하듯 민씨의 사진 앞에서 시선의 감각을 되새김질하다 보면 생각이 피어오르게 된다.

지난 20여 년간 〈잡초〉 〈안개〉 〈설원〉 등의 연작들을 찍으며 특유의 모호한 풍경에 천착해 온 민씨가 최근 서울 방이동 한미사진미술관에서 회고전 형식의 사진전을 차렸다.

〈폭포(Waterfall)〉란 제목이 붙은 이 전시는 어스름이나 안개에 휩싸인 듯한 풍경 사진으로 성가를 누려온 1990년대 이후 그의 작업들을 최근 〈폭포〉 연작을 중심으로 엮은 것이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 세부 등을 포착한 근작들과 더불어 〈깊은 안개〉 〈나무〉 〈설원〉 등 기존 작품들까지 70여 점의 사진이 내걸렸다.

흑백사진의 톤을 최대한 낮춘 인화 기법

민병헌씨는 1987년 돌과 잡초가 깔린 땅을 찍은 〈별거 아닌 풍경〉으로 본격 데뷔한 이래 줄곧 아날로그 흑백 사진을 고집해 왔다.

현상과 사물의 이미지 자체에 천착하는 모더니즘적 감수성, 촬영·인화의 디테일을 따지는 장인적 작업 방식은 적지 않은 팬층을 거느린 스타작가로 그를 자리매김시킨 배경이었다.

애호가들은 자욱한 안개, 비 오는 날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민씨의 회색톤 사진들을 두고 흔히 '동양화 같다' '명상적'이라는 평들을 꺼내곤 한다.

그러나 기실 '민병헌표' 사진들은 고도로 정제된 시각적 '게임'에 가깝다. 작가는 보편화한 디지털 카메라 대신 철저히 필름으로 사진을 찍고 인화, 현상까지 혼자 도맡는다. 이런 아날로그 수작업의 결과로 빚어져 나온 자연과 도회의 풍경들은 '드러낸 것'과 '감춘 것' 사이에서 관객에게 손짓한다.

땅 위의 작은 돌이나 안개 속 나무 잔가지, 흰 눈 속 지푸라기 등이 화면의 회색빛과 한 덩어리가 된다. 그 환영 같은 실루엣에서 관객들은 잊고 있었던 사물들의 존재감을 더욱 생생하게 인식하는 역설을 체험한다. 사진평론가 박평종씨가 "그의 서툴고 수줍은 사물 감추기는 일종의 놀이에 가깝다"고 평한 대로다.

특히 근작들은 폭포라는 새로운 자연 소재에서 뽑아낸 찰나의 아름다움을 색다른 시선의 각도와 깊이로 부각시킨다. 절벽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의 생동하는 물줄기를 모노톤의 감도를 최대한 낮춘 아날로그 인화 기법으로 뽑아낸 사진들이다.

무엇보다도 폭포의 전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난 생생한 물줄기의 질감이 눈에 들어온다. 물방울의 디테일한 이미지들은 희부연 특유의 화면 속에서 환각처럼 피어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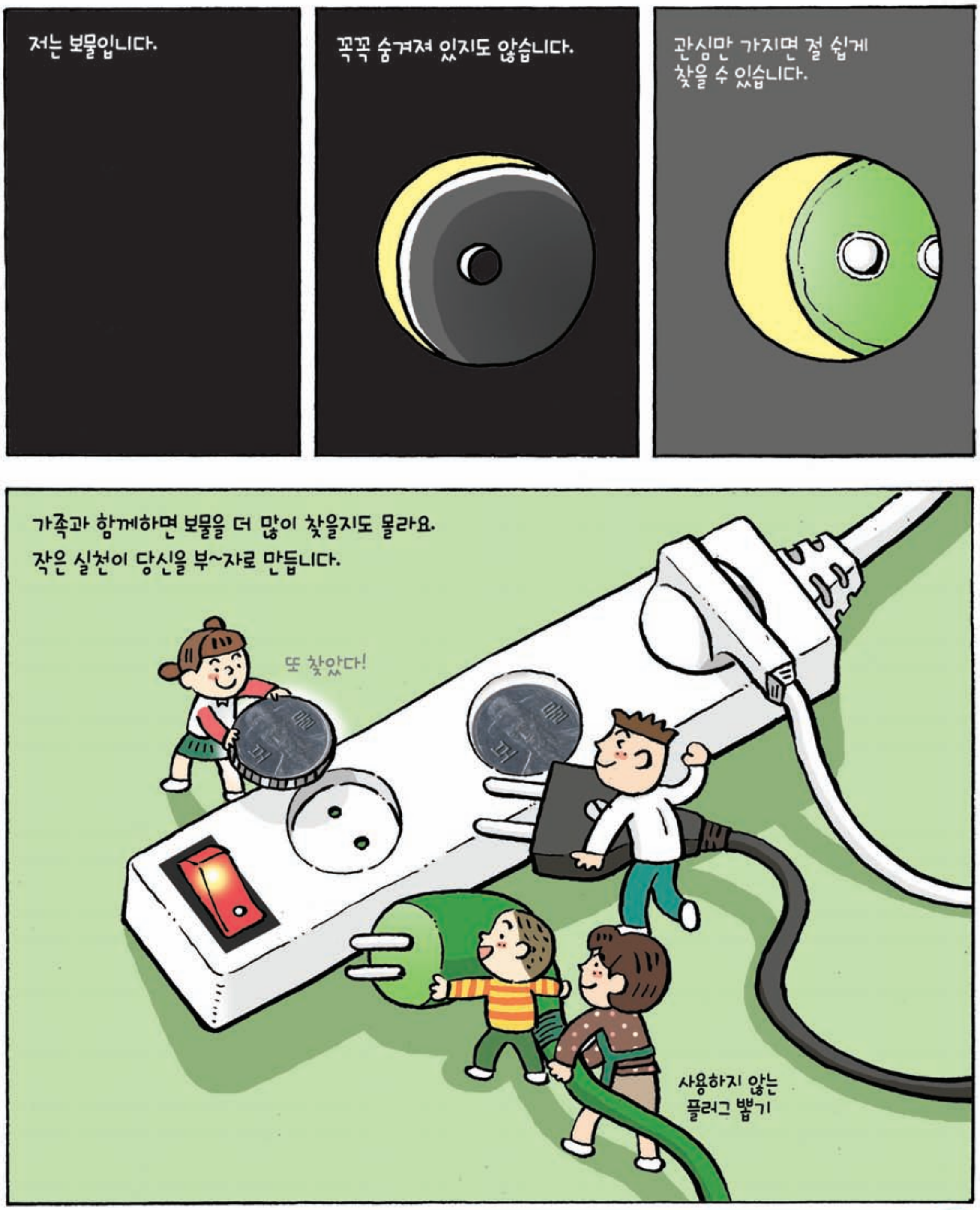
한편 작가 민씨는 지난 4월 29일 3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상 창작부문 대상을 받았다. G

글 · 노형석 (한겨레 문화부 기자)

5월 7일까지 한미사진미술관. 문의 ☎02-418-1315

보물찾기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녹색에너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래의 7가지 함정〉
성공경영을 위한 7가지



21세기북스 펴냄 · 1만4천원



지은이 이경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왜 힘든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제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최근 출간된 〈거래의 7가지 함정〉(21세기북스)은 중소기업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저자 이경만은 현직 공무원이다. 행정고시 출신인 저자는 오랫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단속하고 시정하는 업무를 해왔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불공정거래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관행을 바로잡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중소기업 자신이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7가지 불공정거래의 함정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전속거래'다. 중소기업 제품이 잘나가면 대기업 유통회사들은 대개 전속거래를 요구한다. 중소기업이 여기에 굴복하면 판로 확장이 차단되어 전속 유통회사에 끌려다니게 된다.

둘째 '핵심기술 유출'이다. 갑 기업들은 거래를 위한 필수 정보로 원천 기술 도면이나 CD 등을 요구한다. 을의 입장에 있는 중소기업이 이를 함부로 보여주었다가는 기술 자체를 통째로 빼앗길 수 있다.

셋째 '핵심인재 이탈'이다. 창업 초기부터 유능한 직원을 키워서 그들이 제대로 일할 만한 단계에 오면 대기업이 빼앗아 가버린다.

넷째 '실속 없는 매출'이다. 갑 기업들은 자신들의 원가 절감 목표에 따라 지속적으로 납품가 인하를 요구한다. 이에 굴복하면 이익 없이 판매만 하고, 연구개발이나 투자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다섯째 '구매선 교체'다. 오랫동안 거래하며 서로 믿고 협력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생각한 갑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납품처를 바꾸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여섯째 '시장잠식'이다. 중소기업이 작은 시장에 진입하여 성공을 거두고, 그 시장이 커지면 어김없이 대기업이 그 시장에 달려들어 그것을 장악해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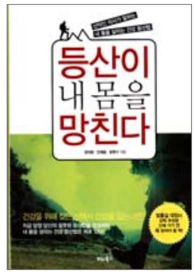
일곱째 '입찰경쟁'이다. 최저가입찰 관행으로 출혈경쟁이 가속화되어 입찰 시장이 혼탁해진다.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도 이기는 중소기업이 있다.

저자는 이런 강소기업이 가진 경쟁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중소기업이 불공정거래의 함정을 피하고,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G

글 · 이상훈 기자

새로 나온 책

등산이 내 몸을 망친다
안재용, 윤현구, 정덕환 지음 |비타북스 펴냄 · 1만3천원



40년 넘게 등산을 즐긴 정형외과 · 내과의사인 저자들이 건강하게 등산을 즐기는 법을 소개한다. 등산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등산의 핵심인 보행과 호흡 등을 자세히 다룬다. 등산도구를 바르게 사용하는 법과 등산 전후에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응급처치법까지 상세히 보여준다. 이 책은 잘못된 등산법으로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등산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하는 베테랑 산악인들도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런던이 사랑한 천재들
조성관 지음 |열대림 펴냄 · 1만8천원



찰리 채플린에서 버지니아 울프까지 런던이 잉태한 천재들의 위대한 예술세계를 담았다. 런던을 무대로 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간 여섯 명의 천재들을 통해 런던의 모습을 재발견한다. 비극적 희극의 거장 찰리 채플린, 독설과 통찰력의 작가 조지 오웰, 역사를 바꾼 영웅 윈스턴 처칠, 〈피터팬〉의 작가 제임스 배리, 선구적 페미니스트 버지니아 울프 등 런던 곳곳에 남아 있는 이들의 흔적과 위대한 성취들을 통해 런던의 매력을 들여다본다.

피자는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가
파울 트룸머 지음 · 김세나 옮김 |더난 펴냄 · 1만5천원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냉동피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추적하며 피자라는 음식 뒤에 숨겨진 여러 사회적 현상을 조명했다. 저자는 가공식품들과 거대 식품기업들을 의심의 눈길로 바라본다. 업체들이 주장하듯 이 음식들이 과연 우리 건강에 좋은 건지,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권익을 보호받고 있는지, 그들이 주도하는 기업경영 논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묻는다.

관용과 친절이 정답!

글과 그림 · 최영순



관용 속에서 자란 어린이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친절 속에서 자란 어린이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도로시 로우홀트

어머니… 엄마… 사랑합니다

뮤지컬 **엄마를 부탁해** 국민소설에서 국민연극으로 거듭난 〈엄마를 부탁해〉가 뮤지컬로 새롭게 탄생했다. 뮤지컬 〈엄마를 부탁해〉는 엄마를 잃어버린 후 온 가족이 찾아 나서는 과정을 옴니버스 식으로 담았다. 사람들로 붐비는 서울역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가족들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진다. 신문광고를 내고 전단지를 붙이며 엄마의 행방을 쫓아 다녀 보지만 엄마는 좀처럼 찾을 길이 없다. 새삼스레 엄마에 대한 기억들을 되짚어 보면서, 엄마의 인생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하나둘 발견한다. 가족들은 이기적인 이유로 엄마 혹은 아내를 필요로 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번 공연은 깔끔하고 균형 잡힌 연출로 연극계에서 크게 주목받는 구태환, 스타 작곡가 김형석 등 최고의 스태프가 참여했다. 메인 테마 '미안하다'는 디지털 싱글로도 발매됐다. 피아노와 현악기로 표현된 곡이다. 자식들에게 한없이 베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엄마의 안타까운 마음과 가까이 있을 때 엄마를 잊고 살았던 자식들의 죄책감이 가슴 절절하게 표현됐다.

김성녀, 차지연, 김덕환, 이계창, 김경선 등 최고의 연기력과 노래 실력을 갖춘 배우들의 깊이 있고 섬세한 연기를 만나볼 수 있다.

일시 2011년 5월 5일~6월 19일 **장소** 충무아트홀 대극장 **관람료** VIP석 9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2230-6600


〈엄마를 부탁해〉
충무아트홀


〈친정엄마 – 제주〉
조선DB

친정엄마 – 제주 연극, 영화에 이어 뮤지컬까지 성공적인 흥행을 거둔 〈친정엄마〉가 제주를 찾는다. 엄마가 딸을 시집보내면서 겪는 해프닝과 갈등의 이야기다. 국민엄마 나문희, 김수미가 함께하며, 이유리, 이꽃님 등 연기파 배우들을 만날 수 있다. 〈님과함께〉 〈소녀시대〉 등의 친근한 음악들이 뮤지컬로 다시 태어났다.

일시 2011년 5월 14~15일 **장소** 제주 아트센터 **관람료** VIP석 7만7천원 R석 6만6천원 S석 5만5천원 A석 4만4천원 **문의** 1600-4534

메노포즈 뮤지컬 메노포즈는 갱년기우울증의 근원인 폐경을 유쾌하고 코믹하게 풀어낸다. 1960~80년대 팝송인 〈Only You〉 〈YMCA〉 〈Lion Sleeps Tonight〉 등의 익숙한 멜로디가 등장, 중년 관객들의 향수를 건드리며 감수성을 자극한다. 당당한 중년여성을 모티브로 한 강렬한 색감의 럭셔리한 무대와 화려한 의상을 만나 볼 수 있다.

일시 2011년 5월 15일까지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관람료** VIP석 8만원 R석 6만원 S석 4만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744-4334

무용 **볼쇼이 아이스쇼** 십 수년간 세계투어를 하며 명성을 쌓아 온 볼쇼이 아이스발레단이 11번째 한국을 방문한다. 〈볼쇼이 아이스쇼〉는 지난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교육적인 필수 코스로까지 여겨지는 등 높은 인기를 보였다. 백설공주, 백조의 호수 등 고전 작품을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해 얼음 위에 관객들과 함께 풀어 나갔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클래식 발레에 스케이팅을 가미해 스포츠의 다이내믹함을 방대한 예술적 스케일로 표현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발레나 스케이팅에 익숙하지 않은 어른들도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 서커스 등 볼거리가 많아 즐겁게 관람할 수 있다.

일시 2011년 5월 22일까지 **장소** 목동아이스링크 **관람료** R석 8만8천원 S석 7만7천원 A석 6만6천원 B석 5만5천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2644-1313

파슨스 댄스 컴퍼니 내한공연 미국 현대무용 역사와 현 시대를 아우르는 결정체 파슨스 댄스 컴퍼니가 내한공연을 갖는다. 세계적인 댄서이자 안무가 교육자인 데이비드 파슨스가 1987년 창설한 현대무용단으로 데이비드 파슨스를 포함하여 11명의 전문 댄서로 구성됐다. 이번 공연에서는 2008년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이스트 빌리지 오페라 컴퍼니와 함께한 무대를 선보인다. 선보일 〈Remember Me〉는 현대무용, 라이브음악, 비디오 프로젝션, 디지털 조명, 그리고 시각 효과들로 구성한 작품이다. 더불어 무대에는 데이비드 파슨스의 대표작 〈Caught〉를 올린다. 28년 이상 전 세계에서 수백 번 공연된 〈Caught〉는 평론가들에게서 "가장 위대한 이 시대 안무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일시 2011년 5월 5~8일 **장소** LG아트센터 **관람료**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OP석 7만원 **문의** 1544-1681


볼쇼이아이스쇼


패티김


설운도

콘서트 **설운도 효 콘서트-하남** 트로트 황태자가 드리는 효의 무대다.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히트곡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라이브의 황제 설운도. 이번 공연에서는 〈다함께 차차차〉 〈쌈바의 여인〉 〈사랑의 트위스트〉 등 수많은 히트곡들을 들려준다. 기존의 트로트 공연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화려한 무대와 다양한 특수효과를 만날 수 있다.

일시 2011년 5월 7일 **장소**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검단홀) **관람료** R석 6만원 S석 5만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31-790-7979

2011 패티 김 어버이날 대공연- 수원 한국 최초의 스탠더드 팝 가수 패티 김. 멈추지 않는 도전과 열정의 패티 김이 어버이날 공연을 갖는다. 패티 김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첫 대중가수로서의 공연, 한국 대중음악인 최초로 뉴욕 '카네기 콘서트홀',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의 공연 등 대중음악의 살아있는 역사다. 열정의 패티 김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일시 2011년 5월 8일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 **관람료** VIP석 9만9천원 R석 8만8천원 S석 7만7천원 A석 5만5천원 장애인·국가유공자 30퍼센트 할인 **문의** 1588-3154

4월 넷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4월 17일~4월 23일

곡명	가수
1 피노키오 (Danger)	f(x)
2 Don't Cry	박봄
3 LOVE SONG	빅뱅
4 거울아 거울아	4minute (포미닛)
5 배가 불렀지 (Feat. GaeKo)	슈프림팀
6 To Me (내게로..)	레인보우
7 들리나요	지아(Zia)
8 방콕시티 (Bangkok City)	오렌지 캬라멜
9 제발	김범수
10 반짝반짝	걸스데이 (Girl's Day)

〈택시 드라이버〉〈람보〉〈7월 4일생〉의 反영웅

전쟁의 광기… 남은 것은 사회의 냉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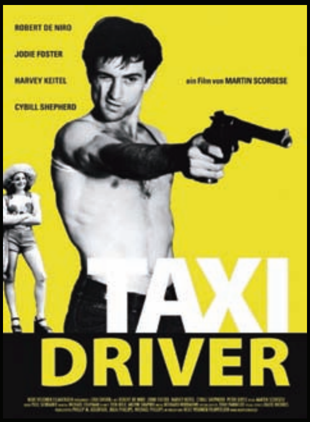
1960년대 미국은 경제적인 선진국이지만 역사상 가장 큰 시련에 직면한다. 월남전에서의 패배와 그로 인한 내부적인 반성의 움직임이었다. 월남전의 영웅들은 본국으로 화려한 귀향을 하지만 정작 국내의 반응은 냉담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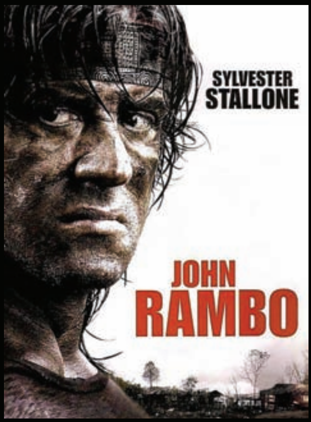
패배한 전쟁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월남전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제국주의 전쟁으로 평가되면서 전쟁영웅들 역시 무고한 양민을 살육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저평가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가슴의 상처를 간직한 전쟁영웅들의 부적응 이야기를 그린 영화들은 이후 미국사회에서 큰 호응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 영웅들의 이미지는 새로운 영웅상, 즉 패배의 영웅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반영웅(Anti-hero)이라고 부른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택시 드라이버〉(1976)는 처음으로 월남전의 반영웅상을 보여준 영화로 기록될 것이다. 월남전의 영웅이었던 주인공 트래비스(로버트 드니로)는 사회에 복귀하면서 뉴욕의 택시운전기사로 활동한다. 뉴욕의 밤거리는 창녀들과 마약상인들과 범죄자들의 온상이다. 트래비스는 그들을 매일 바라보면서 이들을 없애는 일만이 정의를 위한 길이라고 믿게 된다.

그는 12세 어린 창녀 아이리스를 구하기 위해 직접 사창가에 총을 들고 찾아가 포주를 쏴 죽이고 그녀를 구해내 시골로 되돌려 보내준다. 이 영화를 통해 월남전의 영웅들은 신경쇠약에 걸린 사회부적응자로 그려졌다.





패배로 끝난 월남전의 미국내 반응은 차가웠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제국주의 전쟁이며, 전쟁영웅들 역시 무고한 양민을 살육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저평가된다. 이런 가슴의 상처를 간직한 이미지는 새로운 영웅상, 즉 패배의 영웅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反영웅이다.

80년대에 들어와 월남전의 영웅이 부당하게 취급당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는 〈람보〉(1982)다. 그린베레 출신의 월남전 영웅 람보는 어느 마을의 경찰서에서 심하게 몸수색을 당한 후 월남전의 포로였던 악몽이 되살아나 경찰서를 부수고 도주하게 된다.

사건의 도화선이 된 것은 월남전 영웅에 대한 경찰들의 무시하는 태도 때문이었다. 결국 람보는 그를 잡으려는 경찰 및 군인들과 대치하여 전쟁을 치르게 되고 수많은 사상자를 낸 끝에 그린베레 상관의 회유로 눈물을 흘리며 자수한다. 이 영화는 월남전에 대한 미국 사회의 냉담한 시각을 교정하기 위해 월남전 영웅의 입장에서 월남전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갖는다.

올리버 스톤 감독의 〈7월 4일생〉(1989) 역시 〈람보〉에 이어 월남전 영웅들이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냉대받았고 미국정부는 이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에게도 고엽제 피해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억울한 사연과 정부를 향한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절절하게 남아 있다.

〈7월 4일생〉은 론 코빅이라는 인물의 실화를 다룬 영화로서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월남전에 자원해서 참전했지만 반신불수가 되어 의가사제대를 한 후 미국 사회에서 냉대받고 버려지는 과정을 그린다. 그 과정에서 그는 미국정치가 평범한 시민들을 애국주의에 동원했고 나중에 이용했다는 자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인권을 제고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다. 론 코빅은 패배한 전쟁의 영웅이며 미 제국주의의 꼭두각시로서 마치 명분 없는 전쟁을 수행했다는 불결함을 갖는 반영웅이지만 자신의 몸이 불구가 될 정도로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순수한 인간주의적인 애국자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G

정재형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2011. 4월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현금영수증!!!
정직과 성실납세의 증거입니다.
꼭 챙기세요~!
국세청
현금영수증
정직과 성실납세의 증거입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가맹점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 신고시 미발급액의 20% 포상금 지급 ☎12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2011년 2월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대상작품으로 선정된 디자인을 활용하여 제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에 대한 안내
■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
*대상업종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 포함), 무도유흥주점
■ 미발급액 신고시 20%를 포상금으로 지급(건당 최고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 부여
신고방법 세무서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미부착시 과태료 50만원 부과(2011년 4월부터)
인기연예인
김 정 은
함께 만들어요!
대한민국세미래
세미래콜센터
126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NTS 국세청

http://www.gojobs.go.kr

더 큰 대한민국!
당신이 만들어 갑니다.

2011 Public Service Job Fair
공직채용 박람회



2011
5.12[목] – 5.14[토]
코엑스 1층 전시장(Hall B1)

주최 행정안전부